다산학 46호 (2025.6) | 309~368

하빈 신후담과 성호 이익의 역학논변

방인 | 경북대 명예교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성호 이익과 신후담의 교학상장
3. 『역경질서』와 『주역상사신편』의 구본과 신본
4. 『주역상사신편』·『역경질서』·「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답신이로문목(무진)」 등 4종 자료의 대조 분석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

신후담 역학의 연구에서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1763)과 하빈 신후담愼後聃(1702~1761)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호 이익은 평생에 걸쳐 신후담의 학문적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던 관찰자였으며, 신후담의 역학사상의 형성에 가장 오랫동안 지근至近 거리에서 지속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미친 인물이었다. 학계에서는 신후담의 역학사상의 특징을 신후담과 이익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창일은 신후담의 역학 연구는 이익 역학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었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비판하는 지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1] 서근식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신후담이 1748년(47세)에 저술한 『이성호역경질서찬요李星湖易經疾書纂要』에서 이익의 『역경질서』에 대해 비판하고, 성호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 학설로 나아갔다고 보았다.[2] 신후담과 성호의 학설이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신후담이 성호를 비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신후담이 47세 이후로 성호와의 결별을 선언하였다고 한 것은 지나치다. 신후담은 1750년(49세)에 성호와 역학토론에서 『역』의 고주古註는 참으로 취할 것이 있으나, 주희의 『주역본의』에서는 버릴 것이 있다고 하였다가, 성호로부터 '오물치방傲物致謗'하지 말라는 훈계를 들었다. 그러나 1751년(50세)에 성호의 아들 이맹휴李孟休(1713~1751)가 죽어 조문을 갔을 때 성호는 신후담에게 자기가 죽게 되면 유저遺著의 편찬을 맡아

* 이 글은 재단법인 實是學舍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음.

1) 이창일, 「星湖 李瀷 역학 해석의 비판적 계승 – 愼後聃의 상수역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제65집, 한국고전번역원, 2023, 152쪽.

2)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易學)의 성립과정(Ⅱ) – 하빈 신후담의 『주역상사신편』에 나타난 주역 해석 방법」, 『한국철학논집』, 제48집, 2016, 175쪽.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것은 학문적 이견異見에도 불구하고, 성호가 신후담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또 깊이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평생에 걸쳐 끈끈한 사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양자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자의 논문은 성호 이익과 하빈 신후담의 역학토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이익과 신후담의 관계와 역학관의 차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필자는 신후담의 역학이 성호의 역학을 비판적으로 지양止揚하는 지향성을 지닌다고 본 선행연구의 관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신후담이 새로운 이해 방식의 역학해석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호가 자득自得의 공부를 권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역경질서』와 『주역상사신편』의 구본舊本과 신본新本에 관련된 서지학적 문제들을 고찰하였다. 역학 분야에서 『역경질서』는 성호의 역학 관련 주저主著라면, 『주역상사신편』은 신후담의 대표저술이다. 두 문헌에는 모두 구본과 신본이 있는데, 두 저서에서 현재 구본은 일실逸失된 상태이다. 『역경질서』의 구본은 1727년에서 1737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주역상사신편』의 구본은 1728년에서 1736년(병진년)[3] 사이에 쓰여졌다. 『주역상사신편』과 관련된 서지학적 문제는

3) 심사자 가운데 한 분은 『주역상사신편』은 1736년이 아니라 1734년에 완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다. 심사자의 견해처럼 학계에서는 『주역상사신편』이 완성된 해를 "1734년(33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하빈선생연보』에서도 1734년 갑인년 조에 『주역상사신편』의 저술이 마무리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1736년 병진년 조에서는 『주역상사신편』의 완성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주역상사신편』의 마지막에 "遯窩周易象辭新編卷之七終 丙辰正著"라고 쓰여 있는 것과 충돌한다. 즉 『주역상사신편』이 丙辰年(1736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734년에 성호가 신후담에게 보낸 편지 「答愼耳老甲寅」에는 성호가 『주역상사신편을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다. 신후담은 1758년(57세)에 다시 『주역상사신편』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구본을 폐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후담의 사후死後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주역상사신편』의 필사筆寫 및 재편집이 이루어졌다. 제1차 필사는 1762년(임오년)에 신후팽愼後彭·신후은愼後恩·신성愼俔이 신후담의 유문遺文을 토대로 『돈와선생전서遯窩先生全書』를 기획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2차 필사는 1831년에 신신愼信에 의해서 편집이 이루어졌다.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에는 미제괘未濟卦가 끝나는 부분에 신신愼信의 편집후기가 적혀 있다. 따라서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이 1736년(병진년)에 완성된 구본舊本이 될 수 없으며, 1831년의 신신에 의한 제2차 필사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처럼 편집자의 발언이 본문本文과 섞여서 편집되었다는 것은 제2차 필사과정에서 단순한 필사 이상의 원본의 수정 및 변형을 포함한 재편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제4장에서는 『주역상사신편』·『역경질서』·「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답신이로문목答愼耳老問目-무진戊辰」 등 4종 자료의 대조 분석하여 신후담과 이익 사이에 진행되었던 역학 논변論辨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성호와 신후담 사이의 역학 토론은 성호가 1747년에 『역경질서』를 펴낸 것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신후담은 『역경질서』가 완성되자 곧바로 이 책을 빌려 읽고, 1748년(47세) 무진년戊辰年에 『이성호역경질서찬요李星湖易經疾書纂要』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성

읽고, 소감을 말한 부분이 있다. 신후담이 성호에게 『주역상사신편』을 보냈을 때는 아마도 책이 사실상 완성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역상사신편』은 1734년에 거의 완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丙辰正著"라고 한 것은 1734년 이후로도 加筆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필은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주역상사신편』에 "丙辰正著"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역상사신편』의 최종 완성 시기는 1736년(병진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호에게 서신書信을 보냈는데, 이 편지가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이다. 그리고 신후담의 질의를 받은 성호는 「답신이로문목-무진」을 써서 신후담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였다. 이러한 저술들은 『역경질서』의 출간을 계기로 성호와 신후담 사이에 전개되었던 역학 논변의 양상을 보여준다. 필자는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답신이로문목(무진)」·『주역상사신편』·『역경질서』의 네 종류의 자료를 대조해서 성호와 신후담의 토론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성호와 신후담의 역학관의 차이점을 드러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748년의 역학토론에서 이익이 신후담의 역설易說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쟁점들이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신후담은 1736년(35세)에 『주역상사신편』 구본을 저술하였고, 그로부터 22년 뒤인 1758년(57세)에 『주역상사신편』을 수정하였다. 그 후로도 『주역상사신편』은 1762년(임오년)에 신후팽·신후은·신성에 의한 제1차 필사와 1831년에 신신에 의한 제2차 필사를 거쳤다. 따라서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은 1758년(57세)에 저자 본인에 의한 수정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익이 1748년의 역학토론에서 지적한 신후담 학설의 문제점들을 신후담이 수용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로부터 십년 뒤인 1758년(57세)에 수정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4종의 자료를 대조해서 분석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후담이 성호의 비판적 견해를 수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사실 신후담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호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성호가 신후담의 역설易說을 비판했던 것처럼, 신후담도 성호의 『역경질서』의 학설을 비판하였다. 신후담은 역학에 대한 그의 주견主見이 확고하였기 때문에, 성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2. 성호 이익과 하빈 신후담의 교학상장

신후담은 1724년(23세)에 성호 이익의 제자가 된 이후로 죽기 전까지 성호와 긴밀한 사제 관계를 맺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혈연으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신후담의 동생인 신후팽愼後彭은 성호 가문의 이천휴李天休의 손녀와 혼인하였고, 신후팽의 아들 신당愼儅도 성호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4] 신후담의 사회적 관계망은 이처럼 성호를 매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치 성호의 인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다. 신후담은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1695~1773), 정산貞山 이병휴李秉休(1710~1776),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1712~1791), 식산息山 이만부李滿敷(1664~1732),[5] 외암畏庵 이식李栻(1659~1729)[6] 및 성호의 친아들 순수醇叟 이맹휴李孟休(1713~1751) 등과 학술적으로 교유交遊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성호의 지인知人이거나 서신을 주고받던 관계였다. 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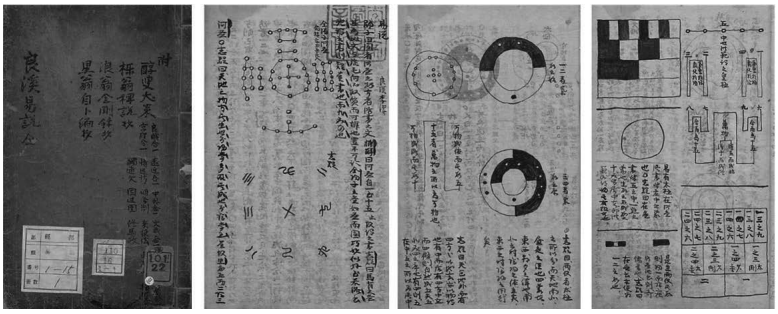
4)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역학연구와 이해」, 『한국사상사학』, 제16집, 2001, 61쪽.

5) 李滿敷(1664~1732): 이만부는 순수한 학자로 벼슬은 일체 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학문적으로는 퇴계학을 계승하였으며, 후기에 역학에 관심을 가져 『易統』과 『易大象便覽』을 저술하였다. 이만부는 星湖 李瀷(1681~1763)과도 성호와 교류하고 있었는데, 신후담은 성호를 통해서 이만부를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빈연보』에 따르면, 신후담은 1729년(영조 5년) 28세에 서강西江) 부근에 사는 이만부를 찾아뵙고, 주희의 『주역본의』·『역학계몽』과 소옹邵雍의 가일배법加一倍法에 관한 강론을 들었다고 한다.

6) 李栻(1659~1729):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延安이며, 자는 敬叔이고, 호는 畏庵이다. 丁時翰의 문인으로 이황과 이재의 학통을 이어받아 성리학에 밝았다. 저서에 『四七附說』이 있다. 『성호문집』에 이익과 이식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이 실려 있다. 신후담은 1728년(27세)에 城東의 藍井洞에 있는 이식의 집을 방문하고, 서학의 아니마(anima) 설에 관해 토론하였으나, 역학과 관련된 내용은 특별히 전해진 것이 없다.

럼 신후담은 성호의 주변 인물들과 폭넓게 교류했으며, 신후담의 사회적 관계망은 성호의 인맥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먼저 양계良溪 이진李濃(1654~1727)[7]은 성호 이익의 사촌 형(堂兄)이자 스승이었는데, 역학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하빈연보』에 따르면, 신후담은 1726년(25세) 병오丙午년에 수원水原 빙천氷川에 사는 양계 선생을 방문하고, 『병오기문편丙午紀聞編』을 써서 그 기록을 남겼다. 당시에 양계선생은 이미 70여세가 넘었지만, 『주역』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1727년에 신후담은 양계선생이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쓴 저서 『계몽지의啓蒙識疑』를 성호를 통해 구해 읽고, 그 정요精要를 채록採錄하고, 간략한 평론을 덧붙였다. 『계몽지의』는 주희의 『역학계몽』과 관련된 저서이지만, 남아있지 않다. 다만 『양계역설良溪易說』[8]이 장서



7) 李濃(1654~1727): 성호 이익(1681~1763)의 사촌 형(堂兄)이자 스승이다. 자는 季通, 호는 素隱이며, 良溪 선생이라고도 불렸다. 進士 李殷鎭의 아들이며,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여러 분야의 글을 두루 보았으며, 특히 『주역』에 힘을 쏟아 『良溪易說』·『啓蒙識疑』(上下篇)·『圖說』 등의 저술을 남겼다. 이 가운데 『계몽지의』는 전해지지 않으나, 『양계역설』은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다. 『성호전집』 제9권 「書」에 李濃이 1723년(계묘년, 경종 3년)에 李濃(1654~1727)에게 역학에 대해 質疑한 것이 남아 있다. 정약용의 『역학서언』의 「다산문답」에도 성호가 양계의 설을 인용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定本』 제17책, 사암출판사, 2012, 308~309쪽)

8) 『良溪易說』: 신후담이 읽었다는 『啓蒙識疑』는 현존하지 않지만, 李濃의 또 다른 역학 저술 『良溪易說』은 현존한다. 이 책의 표지의 書名은 '良溪易說'로 되어 있으며, 卷首題는 '易說'이다.

각에 소장되어 있어, 이진李溍의 역학사상의 대략大略을 엿볼 수 있다.

신후담이 1732년(31세)에 저술한 『독소씨한중괘서도지의讀蕭氏漢中卦序圖識疑』[9]도 역시 이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23년(계묘년)에 성호는 소한중蕭漢中[10]의 저서 『독역고원讀易考原』에 나오는 「괘서도卦序圖」를 구해 읽고, 이진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로부터 9년 뒤에 신후담은 『독소씨한중괘서도지의』에서 소한중의 「괘서도」에 관해 다루었다. 따라서 소한중의 「괘서도」에 관한 신후담의 논의는 이익과 이진 사이에서 오고 갔던 논의에 의해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으로 지산芝山 최도명崔道鳴(혹은 崔道明: ?~?)[11]은 성호가 최징사崔徵士라고 부르던 인물이다. 최도명은 성호 이익과도 교류가 있었는데, 신후담은 성호를 통해 최도명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빈선생연보』에 따르면 신후담은 1731년(30세)에 강원도 양양襄陽의 동호東湖에 머물고 있는 최도명을 찾아뵙고, 『역』에 관해 질의하였다. 신후담은 1733년(32세) 8월에도 다시 최도명을 방

9) 『讀蕭氏漢中卦序圖識疑』는 『하빈선생전집』권3, 내편(III), 175~295쪽에 수록되어 있다.

10) 蕭漢中: 字가 景元으로 泰和 사람이다. 생몰년이 전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가 찬한 『讀易考元』이 元나라 泰正帝 때인 1324~1328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태정제 이후 40년 지나서야 명나라가 건국되므로 소한중은 명나라 사람이 아니라 원나라 사람으로 판단되며, 설령 명나라 때에 생존했더라도 그 기간은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성호가 말한 『卦序圖』는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독역고원』의 다른 제목으로 보인다. 『독역고원』은 八卦의 순서, 分合·體用·主客으로 『주역』이 上經과 下經으로 나뉘게 된 까닭과 괘의 순서가 배열된 뜻을 논한 책이다.

11) 崔道鳴(?~? 혹은 崔道明): 字는 伯謙이며, 호는 芝山이다. 愚潭 丁時翰(1625~1707)의 제자이다. 숙종 21년 을해(1695년)에 조정에서 孝陵參奉에 별천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강원도 양양에 雙湖亭을 짓고, 咏風咏詩하면서 이름을 떨쳤다. 이익이 최도명을 徵士라고 부른 것도 그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李瀷과 교류하였으며, 신후담과도 書信을 교환했다. 『하빈선생전집』에는 신후담이 최도명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상최지산서上崔芝山書」와 「우상지산서又上芝山書」가 수록되어 있다.

문하고, 『주역』의 「선천도」에 관하여 강론하였다. 『하빈선생전집』에는 신후담이 최도명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상최지산서上崔芝山書」와 「우상지산서又上芝山書」가 보존되어 있다. 전자는 1731년과 1734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고, 후자는 1734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상최지산서」에는 괘변설에 관한 최도명의 견해가 드러나는데, 최도명과 신후담의 견해는 서로 달랐다. 즉 최도명은 주희의 『주역본의』의 괘변설卦變說을 추종하고 있는데 반해서, 신후담은 정이程頤의 『역전』의 괘변설을 따르고 있다.

그다음으로 성호학파의 제1세대 좌장 역학을 했던 소남召南 윤동규尹東奎(1695~1773)[12]는 신후담보다 7살 위였으며, 신후담에게는 내외종간의 종형從兄이었기 때문에 매우 가깝게 지냈다. 그리고 신후담이 14살(1715) 때 관례冠禮를 치루었을 때, 윤동규를 찬례贊禮로 삼아 성인식을 올렸다.[13] 『하빈선생연보』에 1761년 9월에 윤동규가 병문안을 와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강론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14] 윤동규와 신후담은 같은 성호 문하의 제자로서 공서파攻西派로 간주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신후담이 제기한 '공희로公喜怒 논쟁'을 계기로 서로 대립하였다. 그리고 윤동규는 이익의 발언을 인용하여, 신후담의 주장이 지나치며, 본래부터 병통病痛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였다.[15] 윤동규는 신후

12) 尹東奎(1695~1773): 조선 후기의 실학자. 본관은 坡平이고, 호는 邵南이며, 字는 幼章이다. 17세에 성호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겨가 성호의 거처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 安鼎福·李家煥·權哲身 등과 친교를 맺었고, 역법, 천문, 지리, 의약 등 실용적 학문의 수립을 역설하였으며, 理氣說 등 성리학에도 능통하였다. 문집으로 『邵南文集』이 있다.

13) 강세구, 「星湖門人 河濱 愼後聃과 星湖學派」, 『하빈학의 지식문화적 기호와 규모 – 성호학의 문파적 전개』, 성호학회·하빈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자료집, 2024, 46쪽.

14)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학문세계』, 다홀미디어, 2021, 364쪽.

15) "庚午下敎曰耳老自主張太過, 本來病痛."(召南文集, 答李景協書, 甲申條(1764), 四月); 강

담이 『주역』에만 집중하고 다른 경전은 소홀히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윤동규도 역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계사지의繫辭志疑』를 저술하였다.[16] 윤동규는 소옹邵雍의 가일배법加一倍法이 양웅의 『태현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주희의 『역학계몽』의 내용도 『태현경』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성호는 1748년(무진년)에 신후담에게 보낸 편지 「답신이로문목答愼耳老問目·무진戊辰」에서 윤동규로부터 "발모여拔茅茹"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을 언급하였다. 성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동규가 질문한 것은 '모茅'의 띠풀이 세 갈래로 되어 있는 것이 삼획三畫의 상象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호는 그러한 견해를 부정하면서, 어쨌든 태괘泰卦와 비괘否卦가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태괘泰卦 초구初九와 비괘否卦 초육初六에 "발모여拔茅茹"라는 같은 효사가 나오며, 또 그 점占도 같은 것同辭同占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17]

그 밖에 이익李瀷(1681~1763)은 신후담에게 윤선거尹宣擧(1610~1669)[18]의 『미촌집美村集』을 읽어볼 것을 권하였으나, 신후담이 『미촌집』을 읽

병수, 「하빈 신후담의 역학연구와 이해」, 『한국사상사학』, 제16집, 86쪽.

16) 윤동규의 역학사상에 대해서는 서근식의 논문을 참조할 것.(서근식, 「邵南 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108호, 2021)

17) "近得幼章書云偶拔茅根. 根必三朶. 或是下三畫之象. 玆豈然哉. 且置取象之何居. 否泰相反也而同辭同占. 此不可不究."(「答愼耳老問目戊辰」) (https://www.krpia.co.kr/)

18) 尹宣擧(1610~1669): 朝鮮 後期의 學者로 字는 吉甫, 號는 美村이다. 윤증의 아버지였으며, 김집의 문인이었다. 그의 사후에 아들 윤증이 宋時烈이 經傳註解 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송시열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뒤에 노소분파의 한 계기가 되었다. 윤선거는 병자호란 이후 4년여간 칩거하면서 주역을 연구하였는데, 그 성과는 『後天圖說』에 집약되어 있다. 그는 선천의 학문은 소옹에 의해 그 체제가 갖추어졌지만, 후천의 학에 대해서는 先儒들 사이에서 정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왕팔괘방위의 근본 원리에 대해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지훈, 「17세기 후반 윤선거 역학의 성립배경」, 『한국인물사연구』, 제17호, 2012, 211쪽)

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19]

신후담이 성호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사제 관계를 맺은 것은 1724년(23세)이다.[20] 『하빈선생연보』에 따르면 신후담은 1724년에서 1750년에 이르기까지 36년 동안 이익을 20차례나 방문하였다. 당시의 교통 사정을 고려해보면 신후담이 살던 경기도 파주에서 성호가 거주하던 안산까지 왕래한 것은 결코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것이다.[21] 1724년에 신후담은 당시에 아현鵝峴[22]에 머물고 있던 성호를 세 차례나 방문하였지

19) 강병수는 이익이 신후담에게 尹宣擧의 「後天圖說」을 한 번 읽어볼 것을 권하였으나, 신후담은 윤선거의 『美村集』을 구해 보지 않았거나, 못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역학연구와 이해」, 『한국사상사학』, 제16집, 90쪽) 이익이 신후담에게 윤선거의 『미촌집』에 대해 언급한 것은 1734년(갑인년)에 신후담에게 보낸 편지 「答愼耳老甲寅」에서였다. 이 편지에서 이익은 신후담에게 "빌려주었던 몇 종의 책은 다 읽었습니까?"라고 말하고, 곧 이어 『미촌집』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정사년(1737, 영조13)에 이익이 신후담에게 보낸 편지 「答愼耳老丁巳」에서도 "尹宣擧의 『美村集』에 들어 있는 「序卦傳」과 「說卦傳」의 두 조목의 득실은 어떠합니까? 편지에서 언급하지 않아 매우 답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신후담이 윤선거의 『미촌집』을 이익으로부터 빌려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후담이 윤선거의 『미촌집』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읽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 신후담이 성호의 문하생이 된 것은 부친 愼龜重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愼龜重은 성호와 친분이 두터웠고, 성호의 학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신후담의 戚從兄 尹東奎가 한양 龍山坊에서 인천 道南村으로 이주하여 1711년 이후로 성호의 문하생이 되어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후담을 종형 윤동규와 함께 성호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도록 주선한 것으로 추정된다.(강세구, 「성호 문인 하빈 신후담과 성호학파」, 『성호학보』 26호, 2024, 74쪽)

21)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경학사상 서설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3호, 2014, 40~41쪽.

22) 『하빈선생연보』에 '四年甲辰年'條에 "봄에 성호 이선생을 아현우사로 찾아뵈었다."(春拜星湖李先生於鵝峴寓舍)라고 하였고, 『紀聞編』에 "갑진년 3월 21일 나는 아현에서 우거하고 계시던 성호 이선생을 찾아뵈었다."(甲辰三月二十一日, 余往拜李星湖丈于鵝峴寓舍)라고 하였다." 여기서 '鵝峴'은 '阿峴'·'兒峴'과 함께 漢陽의 '애오개'를 가리키는 지명이다. 당시에 성호의 친족의 '舊宅'이 阿峴에 있었다고 한다.(『惠寰雜著』, 7冊, 祭文 再祭舍弟文. "嗚乎, 君生於長川, 沒於長川, 葬於長川, 其中間, 所游阿峴·貞洞鷗湖刻里 …… .") 성호의 가문은 서울의 貞洞이 기반이었고, 貞洞과 阿峴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강세구, 「성호 문인 하빈 신후담과 성호학파」, 『성호학보』 26호, 2024, 74쪽)

만, 『주역』에 관하여 토론했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1724년 정월의 첫 만남에서는 성호의 저서 『사칠신편四七新編』에 나오는 사단칠정四端七情에 관해 질의하였다. 이때 성호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마테오 리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23] 신후담이 마테오 리치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성호는 이 사람의 학문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며, 그가 도道에 도달한 경지를 논한다면 성인聖人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24] 그러나 신후담은 성호의 이러한 견해에 수긍하지 않았다. 신후담은 자신이 『직방외기』를 읽어 보았는데, 천주교의 도는 전적으로 불교를 답습하였으며, 사학邪學이라는 것을 의심할 바가 없다고 말했다.[25] 그리고 내친 김에 『서학변』을 써서 서학의 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조목조목 밝혔다.[26]

이처럼 스승의 발언을 공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 신후담은 성

23) 1724년 3월 21일의 첫 방문에서 신후담이 성호와 『주역』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신후담이 성호를 직접 방문하여 『주역』에 관한 강론을 들었던 것은 1728년(27세)이었다. 정월에는 鵝峴에서 『가례』·『중용』·『예기』·『역경』·『예기』 등에 대해 강론을 들었고, 7월 17일에는 안산에서 『주역』에 관한 강론을 들었다.(강세구, 「성호 문인 하빈 신후담과 성호학파」, 『하빈학의 지식문화적 기호와 규모 – 성호학의 문파적 전개』, 성호학회·하빈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자료집, 2024, 47쪽) 그런데 1728년은 신후담이 『주역상사신편』의 저술에 착수하였던 해이기 때문에 『주역』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을 시기였다. 그리고 1729년(28세)에도 성호를 두 차례 방문하여 『주역』에 대한 강론을 들었다고 한다.

24) 신후담, 『하빈 신후담의 돈와서학변』, 김선희 역, 실시학사, 사람의무늬, 2014, 47~48쪽.

25) 위의 책, 65쪽.

26) 『서학변』은 완성도가 매우 높은 저술이어서 洪以燮은 신후담이 그렇게 이른 나이에 이 정도 수준의 저술을 쓸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그 저술연대를 1754년(53세)으로 추정하였다.(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학문세계』, 다홀미디어, 2021, 240쪽) 그러나 신후담은 『서학변』 이전에도 1720년(19세)에 『역학계몽보주』를 저술하였고, 1721년(20세)에 『참동계찬요』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주역상사신편』도 1728년(27세)에 착수하여, 1734년(33세)에 완성된 저술이다. 이처럼 신후담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저술가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기 때문에, 23세(1724년)에 『서학변』을 저술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음이 틀림없다. 성호는 「답신이로答愼耳老·무진戊辰」(1748)에서 학문에 전념하는 제자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스스로 뻐기는 기미가 있고, 고상한 의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타인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평하였다.

> 이로耳老[27]가 평생 동안 학문을 독실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끝없이 사랑하였으니, 다시 완비完備되기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지견知見이 이미 깊기 때문에 스스로 뻐기는 기미가 조금 있고, 의론이 고상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을 대할 때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상氣像과 심기心機가 또 안팎이 통철洞徹하지 않으니, 그대가 스스로 돌이켜 보면 또한 반드시 자기 내면을 비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을 어떻게 생각합니까?[28]

신후담이 성호를 방문하여 『주역』에 관한 강론을 들었다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1728년(27세)이다. 신후담은 1728년에 성호를 두 차례 방문하였는데, 정월에는 아현에서 『가례』·『중용』·『예기』·『역경』·『예기』 등에 대해 강론을 들었고, 8월에는 안산으로 찾아가 『주역』에 관한 강론을 들었다.[29] 신후담은 1728년에 『주역상사신편』의 저술에 착수했으

27) '耳老'는 신후담의 字이다. 『하빈선생연보』에 따르면 신후담은 1732년(31세)에 字를 耳老에서 淵老로 고쳤다고 하는데, 성호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愼耳老라고 부르고 있다.

28) "耳老平生篤學. 衆人共悅. 愛之無極. 更加責備則抑亦有說. 知見旣深. 故微涉自大. 議論喜高. 故接物多忽. 氣像城府. 又非表裏洞徹明者. 自反亦必有以內照矣. 此意未知如何." (『星湖先生全集』 卷之二十三, 「書」,[答愼耳老 戊辰](https://www.krpia.co.kr/)

29) 강세구, 「星湖門人 河濱 愼後聃과 星湖學派」, 『하빈학의 지식문화적 기호와 규모 – 성호학의 문파적 전개』, 성호학회·하빈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자료집, 2024, 47쪽.

며, 1734년(33세)에 이 책을 완성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역』은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화제話題가 되었을 것이다. 이 무렵에 성호도 역시 역학에 관련된 저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신후담은 『이성호역경질서찬요李星湖易經疾書纂要』(1748)에서 성호가 『역경질서』(1747)를 출간하기에 앞서 "십수년 전十數年前"에 쓴 『역설易說』이 있었다고 하였다. 『역설』은 성호가 1747년에 펴낸 『역경질서』의 구본舊本으로 추정되는 저술이다. 만약 『역경질서』를 펴낸 1747년보다 "십수년 전"에 썼다면 그 저술 시기는 대략 1727년(20년 전)에서부터 1737년(10년 전) 사이가 된다. 신후담이 『주역상사신편』의 저술에 착수한 것은 1728년이고, 완성한 것은 1736년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성호가 『역경질서』 구본舊本을 저술했던 시기와 겹친다. 그렇다면 성호는 이 시기에 구본 『역경질서』를 써 놓고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앞서 "신편新編"[30]이라는 야심찬 제목을 붙여 저술을 펴내었으니, 성호의 심정이 결코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신후담은 1734년[31]에 『주역상사신편』의 원고를 성호에게 보내고 질정質正을 구했다. 성호는 신후담의 편지를 받고 답신을 보냈는데, 이 답신이 「답신이로答愼耳老·갑인甲寅(1734)」이다. 성호는 이 편지에서 『주역상사신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

30) 김병애에 따르면 『周易象辭新編』의 '新編'에는 당시 유행하던 대전본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고주역'과 같은 체제로 고쳐서 편집하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신후담은 程朱易으로 획일화된 주역해석으로는 역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통감하고, 새로운 체제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新編의 편제는 64괘가 일괄적으로 '卦符號-卦名-卦名解-卦辭-爻辭-彖傳-大象傳-小象傳'의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김병애, 『하빈 신후담 『주역상사신편』의 역경해석틀 양상고찰』, 『하빈학의 지식문화적 기호와 규모 – 성호학의 문파적 전개』, 성호학회·하빈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자료집, 2024, 112쪽)

31) 앞서 각주에서 언급했듯이 『주역상사신편』은 1734년에 사실상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에서는 1736년 丙辰年에 완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지금 『주역상사신편』을 보건대 마음을 쓴 것이 지극히 세밀하니 참으로 경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남김없이 모두 분석하여 더 이상 유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혹시 견강부회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32]

『주역상사신편』은 때때로 펼쳐서 보기는 하지만 정신력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근래에 상경上經을 읽으면서 차기箚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훗날 반드시 그대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만약 한두 가지라도 채택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합쳐서 책을 완성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의 책에서 말이 너무 많은 곳은 의당 산삭刪削해서 간략하게 해야 비로소 유감遺憾이 없게 될 것입니다.[33]

아마도 신후담은 6년[34]을 고심해서 내놓은 『주역상사신편』에 대한 성호의 격려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신후담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서新書에 대한 칭찬 혹은 제자에 대한 격려는 성호의 발언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성호는 『주역상사신편』을 때때로 펼쳐 보기는 하지만 정신력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성호는 신후담의

32) "今觀新編, 用意至細, 誠有欽歎. 然一皆剖覈, 不復遺憾, 其間容或有牽強者存."(『星湖先生全集』 卷之二十二, 「書」, [答愼耳老 甲寅])(https://www.krpia.co.kr/)

33) "新編之書, 時或把閱, 自是精神淺短, 不能領會, 瀷亦比讀上經, 不免有箚記, 佗日必將仰質. 如有一二可採. 合以成書. 庶幾纖末有助. 如公書之說話太多處. 宜亦刊落就簡. 方是無憾耳."(『星湖先生全集』 卷二十三, 「書」, [答愼耳老(甲寅)])(https://www.krpia.co.kr/)

34) 신후담이 『주역상사신편』의 저술에 착수한 것은 1728년이다. 1734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주역상사신편』을 쓰는 데 걸린 기간은 6년이다. 그러나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에서는 1736년 병진년에 완성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1736년을 기준으로 보면 8년이 된다.

『주역상사신편』에 대해 마음을 쓴 것이 지극히 세밀하니 참으로 경탄스럽다고 칭찬하면서도 견강부회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심지어 성호는 『주역상사신편』에서 "말이 너무 많은 곳"(說話太多處)은 산삭刪削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신후담이 성호의 충고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신후담이 『주역상사신편』을 1758년(57세)에 다시 고쳐 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후담이 이광지李光地(1642~1718)의 『주역절중周易折中』을 구해서 읽은 것은 1734년 무렵이며, 이 시기에 신후담은 『주역상사신편』을 거의 완성해 놓고 있었다. 『주역절중』은 문연각文淵閣 대학사大學士 이광지李光地(1642~1718)가 강희제康熙帝의 명命을 받아 1715년에 출간한 책이다. 조선에 이 책이 들어온 것은 1723년이며, 진하사進賀使로 파견된 밀창군密昌君 이직李樴(1677~1746)이 청나라 옹정제雍正帝로부터 『주역절중』 초간본을 반사頒賜받아 가져왔다고 한다.[35] 그런데 1735년(을묘, 영조11)에 성호 이익이 최도명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주역절중』이라는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折中之書, 不曾得見.)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온다.[36]

> 『주역절중』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말씀하신 뜻으로 헤아려 보면 『역』을 배우는 자가 한번 읽어 보지 않아서는 안 될 책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존장께서 어디를 통해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책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한가한 날에 대략 서너 장을 살펴보니 너무도 생소하여 눈과 마음을 놀라게 합

35) 신재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이광지 수용과 비판」, 『한국실학연구』, 제34호, 2017, 584쪽.

36) "所囑折中之書, 不曾得見, 雖以敎意揣之, 學易者之所不可不一閱也. 未知侍者何從得之." (李瀷, 『星湖先生全集』, 卷13, 「與崔徵士道鳴」, 乙卯)(https://www.krpia.co.kr/)

니다. 진실로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으며 마치 망망한 대해를 보는 듯합니다. 지난날 저 청나라의 풍속이 본래 예악禮樂과 명교名敎를 따르지 않았었는데 능히 크게 본모습을 벗어 버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처럼 대단한 것을 만들었으니, 하늘이 품부한 바가 진실로 중화中華는 넉넉하고 오랑캐는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 차례 여럿이 돌려 보아 부탁하신 말씀에 부응하고자 하지만, 이것이 이미 빌려 온 책자여서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보여 주기 어려우며, 또 별본別本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용龍의 고기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고기를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37]

이 편지에 의거해 보면 최도명은 당시로는 희귀도서였던 『주역절중』을 소장하고 있어서, 성호와 신후담에게 소중한 열람의 기회를 제공했다. 신후담이 『주역절중』을 처음으로 접한 시기는 『주역상사신편』을 탈고脫稿한 1734년(33세) 직후로 추정된다.[38] 그렇다면 신후담은 성호보다 앞서 『주역절중』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후담은 1731년(30세)에 강원도 양양襄陽의 동호東湖에 머물고 있는 최도명을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1732년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신후담은 1735년 이전에 최도명을 통해 『주역절중』을 빌려서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역절중』

37) "且所囑折中之書. 不曾得見. 雖以敎意揣之. 學易者之所不可不一閱也. 未知侍者何從得之. 瀷於此蓋蔑如也. 時以暇日. 略考一三板. 怵目駭心. 誠不解其何語何義. 奚啻望洋. 而向若彼本非禮樂名敎之俗. 而大能脫剝智思. 辦斯奇事. 天之所賦. 信非華豐而夷嗇矣. 雖欲一綽遮眼. 用副賜敎之意. 此旣是借翫文字. 恐難轉挂佗手. 又不聞別本之蓄者. 是謂談龍肉而不得嘗者近之耶."(『星湖先生全集』, 第13卷 「書」, 「與崔徵士, 道鳴○乙卯」)

38) 김병애는 신후담이 『주역절중』을 처음으로 접한 시기를 『주역상사신편』을 脫稿한 1734년(33세) 직후로 보았다.(김병애, 「折中義例」에 보이는 신후담 역학요소의 개념분석과 성호 문인의 周易折中 논변」, 『동양철학연구』, 제99집, 동양철학연구회, 2019, 36쪽)

과 관련하여, 신후담은 『절중의례折中義例』·『절중강령折中綱領』 등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은 신후담이 『주역절중』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성호도 역시 『주역절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성호의 구본舊本 『역경질서』에 『주역절중』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본 『역경질서』를 쓴 시기가 1727년(20년 전)에서부터 1737년(10년 전) 사이라고 한다면, 1735년에서 1737년 사이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반영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호가 『주역절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평한 것은 1747년에 출간한 신본新本 『역경질서』에서이다. 어쨌든 1735년 이후로 신후담과 성호는 모두 『주역절중』을 구해서 그 내용 분석에 착수했으며, 『주역절중』은 역학토론의 공동 관심사가 되었다.

1747년은 신후담과 성호 두 사람에게 모두 오랜 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는 한 해였다. 신후담은 1733년(32세)에 저술에 착수했던 『주역통의周易通義』를 14년 동안의 각고刻苦의 노력 끝에 1747년(46세)에 완성했다. 이 책은 『주역상사신편』과 더불어 신후담의 역학 관련 주저主著로 평가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존하지 않는다. 1747년과 1748년은 신후담의 저술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噴出하던 시기였으며, 1748년에 이르러 신후담의 역학은 절정기絶頂期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있다. 즉 1747년에는 『하락후설河洛後說』·『낙서후설洛書後說』을 쓰고, 1748년에는 『이성호역경질서찬요李星湖易經疾書纂要』·『상성호역경질서별지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내씨역도찬요來氏易圖纂要』·『내씨역설찬요來氏易說纂要』·『독임당양씨시교고금문역기의讀林塘楊氏時喬古今文易記疑』·『아동간이최씨립역구결약평我東簡易崔氏笠易口訣略評』 등을 저술했다.

그리고 성호 이익도 1747년에 십수년 전부터 쓰던 『역설』을 수정하

여 『역경질서』를 펴내었다. 성호의 『역경질서』의 출간은 신후담에게 자신의 저서 『주역상사신편』과 비교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했다. 『역경질서』가 출간되자 신후담은 곧바로 그 요점을 간추린 『이성호역경질서찬요李星湖易經疾書纂要』를 저술하고, 이어서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를 써서 『역경질서』와 관련된 역학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질의했다. 『하빈선생연보』에서는 신후담이 『이성호역경질서찬요』의 저술 동기가 『역경질서』에 "자세하게 논하지 못한 부분(未詳處)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데 있었다고 하였다.[39] 신후담은 성호에게 질정質正을 구하는 자세를 취하였지만, 자신의 견해가 스승보다 오히려 낫다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성호역경질서찬요』에서는 『역경질서』가 탁월한 저서이기는 하지만 『주역상사신편』과 비교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견해를 곳곳에서 내비쳤다.[40] 신후담은 성호의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주견을 확고하게 세워 받아들일 것과 버릴 것을 가려내었다. 신후담은 『역경질서』를 자신의 저서 『주역상사신편』과 『주역통의』의 견해와 비교하면서, 『역경질서』와 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매우 정밀하고 이전의 사람들이 아직 밝히지 못한 것이다."(其義甚精 前人所未發冶)라고 높이 평가하였다.[41] 만약에 자신의 견해가 성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자세하게 고찰해 보기 바랍니다."(更詳之)[42]라고 하였고,

39) "二十四年, 戊辰, 先生, 四十七歲. 讀星湖所撰易經疾書有纂要. 因上星湖書論易經疾書, 未詳處."(愼後聃, 『河濱先生年譜』, 『河濱先生全集』, 卷九, 아세아문화사, 2007. 83쪽)

40)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Ⅱ) – 하빈 신후담의 『주역상사신편』에 나타난 주역 해석방법」, 『한국철학논집』, 제48집, 2016, 175쪽.

41) "疾書又言. 乾合少陰, 坤合少陽, 以乾坤父母. 故不取相交之義, 其義甚精, 前人所未發冶." (『李星湖易經疾書纂要』, 『河濱先生全集』, 「內篇」 Ⅲ, 아세아문화사, 2007, 37쪽)

42) "疾書大亨貞之說 最定 但利貞不必讀利而貞 更詳之."(『李星湖易經疾書纂要』, 「乾」, 『河濱先生全集』, 「內篇」 Ⅲ, 아세아문화사, 2007. 19쪽)

설령 일치하더라도 자신의 견해가 더 탁월하다고 생각되면, "다만 그(『역경질서』의)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但其爲說有未盡)[43]라고 하였다.

성호와 신후담은 역학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후담이 상수象數를 중시했던 반면에 성호는 자신의 해석방법이 문세文勢와 자의字義를 위주로 하며, 상수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상未詳으로 남겨 놓았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역학에 대한 관점은 이처럼 달랐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빈선생연보』에 따르면 신후담은 1750년(49세)에 성호를 찾아뵙고, 『역』에 관해 토론했다. 그 때 신후담은 『역』의 고주古註는 참으로 취할 것이 있으나, 주희의 『주역본의』에서는 버릴 것이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에 성호는 "과연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작별 인사를 할 즈음에 성호는 "오물치방傲物致謗[44]하지 말라."라고 훈계하였다. 이 사건은 결코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역학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랜 기간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호가 자신의 견해를 제자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사제 간의 토론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설령 제자와 견해가 어긋난 경우에도 제자의 의견을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5] 성호는 신후담을 가르쳐야 할

---

43) "此謂卦辭主初五 言愚新編所論亦然. 但其爲說 有未盡."(『李星湖易經疾書纂要』, 「頤」, 『河濱先生全集』, 「內篇」 III, 아세아문화사, 2007. 71쪽)

44) 傲物致謗: '傲物'은 '세상을 오만하게 본다(傲視)'는 의미이다. 白居易의 「좌우명」에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오만하게 하지 말아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것을 멀리하라.(無以意傲物, 以辱遠於人)"라는 말이 있다. '致謗'은 '남의 비방을 초래하다'는 뜻이다.

45) 강세구, 「星湖門人 河濱 愼後聃과 星湖學派」, 『하빈학의 지식문화적 기호와 규모 – 성호

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동학同學으로 여겼다. 성호는 신후담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였고, 자신의 역학을 계승할 후계자로 여겼다. 1751년(50세)에 성호의 아들 이맹휴李孟休(1713~1751)가 죽어 신후담이 조문을 갔는데, 성호도 병세가 위중하여 거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인使人의 부축을 받은 채로 신후담을 만났다. 이때 성호는 신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역』 중에서 대단공부大段工夫[46]를 누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역설易說 중에도 자네의 말을 인용한 것이 있다네. 일찍이 그대의 역설易說의 전문全文을 보고 서로 강토講討하면서, 교학상장敎學相長[47]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네. …… 나의 「계사繫辭」 전초前草는 자네가 본 것이 많다네.[48]

그리고는 시자侍子를 돌아보고는 "내가 죽은 뒤에는 나의 저술 가운

학의 문파적 전개』, 성호학회·하빈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자료집, 2024, 66쪽.

46) 大段工夫: 먼저 중심이 되는 綱領을 파악하는 讀書法을 가리킨다. 朱子의 「讀大學法」에 "『대학』을 볼 때에는 大指를 보기를 기다려 다른 책에 미쳐야 한다. 다만 볼 때에는 모름지기 다시 큰 段落을 가지고 나누어 작은 段落으로 만들어, 字字句句를 용이하게 지나쳐 버리면 안 된다."(看大學, 俟見大指, 乃及他書, 但看時, 須是更將大段, 分作小段, 字字句句, 不可容易放過.)라고 하였다.(成百曉 譯註, 『大學中庸集註』, 傳統文化硏究會, 1991, 18~19쪽.)

47) 相長: "敎學相長", 즉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라는 의미이다. 『禮記』의 「學記」 편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48) "余於易中有大段工夫, 誰能敷揚者耶? 易說中亦有取君言者, 嘗欲閱君易之說全文而參互講討以爲相長之地矣. 未及可嘆. …… 余之繫辭前草, 君所見者多."(愼後聃, 『河濱先生年譜』, 『河濱先生全集』, 卷九, 아세아문화사, 2007, 87쪽);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학문세계』, 다홀미디어, 2021, 355쪽)

데 수정修正할 일은 모름지기 이로耳老와 상의하라."라고 하였다.[49] 성호는 유저遺著의 편찬을 신후담에게 위촉하였으나, 신후담은 1761년 11월 24일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성호의 유지遺旨를 받들 수 없었다. 성호는 「성균진사신공묘지명成均進士愼公墓誌銘」을 지어 탁월했던 제자의 죽음에 추도追悼의 감정을 표했다. 그리고 1763년 12월 17일에는 성호 이익도 세상을 떠났다.

역학의 분야에서 신후담과 이익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이 가르침을 베풀고, 제자가 스승의 학설을 전승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성호는 제자에게 가르침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제자의 학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효변설은 신후담이 성호에게 영향을 준 대표적 경우이다. 신후담의 효변론은 그의 스승 성호 이익의 효변론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면적이다. 『역경질서』에서 효변은 곤괘坤卦·손괘損卦·익괘益卦·리괘履卦 등에서 몇 차례 적용하였지만 『주역상사신편』에서는 『주역』의 모든 효사爻辭에 전면적으로 적용하였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주역상사신편』은 1736년의 저술이고, 『역경질서』는 그보다 11년 늦은 1747년의 저술이다. 이익은 1747년의 『역경질서』보다 십수년 전에 쓴 구본舊本 『역경질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효변설의 개척자가 신후담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신본新本 『역경질서』에서 효변설이 단지 몇 괘에만 적용되었을 뿐인데, 구본舊本 『역경질서』에서 체계를 갖춘 효변설이 있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호가 『역경질서』에서 곤괘坤卦 육사六四의 "괄낭무구括囊無咎"의 주注 등에서 효변이 적용되는 예시例示를 보이고, 이것을 신후담이

49) "顧侍子曰, 我死者之後, 文字修正事須與耳老商議爲之."(愼後聃, 『河濱先生年譜』, 『河濱先生全集』, 卷九, 아세아문화사, 2007, 87쪽);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학문세계』, 다홀미디어, 2021, 355쪽)

그것을 모방하여 『주역』 전편으로 확대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효변설을 먼저 제출한 것은 신후담이지 이익은 아닌 것이 된다.

3. 『역경질서』와 『주역상사신편』의 구본과 신본

성호의 역학 관련 주저는 『역경질서』[50]이고, 하빈의 역학 관련 대표 저술은 『주역상사신편』이다. 『역경질서』는 6권 3책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이며, 권두卷頭에 1747년(영조23)에 이익이 쓴 자서自序가 있다.[51] 그리고 『주역상사신편』은 신후담이 1728년(27세)에 저술에 착수하여, 1736년(35세)에 8년 만에 완성한 저술이다. 두 저서에는 모두 구본舊本과 신본新本이 존재한다.

먼저 『역경질서』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자. 신후담이 1748년(47세)에 쓴 『이성호역경질서찬요李星湖易經疾書纂要』에 따르면, 『역경질서』에는 두 종류의 필사본이 있었다.

---

50) '疾書'란 「橫渠畫像贊」의 "터득한 바가 있으면 얼른 기록하였다."(妙契疾書)라는 구절에서 나왔으며, '떠오른 생각을 잊지 않기 위해 빨리 적어놓은 것'을 뜻한다. 성호는 33세 무렵(1713)부터 대략 50대까지 『논어질서』·『맹자질서』·『대학질서』·『중용질서』·『시경질서』·『서경질서』·『역경질서』·『소학질서』·『심경질서』·『근사록질서』·『가례질서』 등 모두 11종의 질서를 찬술했다.

51) 『역경질서』에는 7종의 필사본이 존재한다. ① 국립중앙도서관 星湖疾書-周易(古1250-27) 국중본(가), ② 국립중앙도서관 七經疾書-易經疾書(B2古朝01-4) 국중본(나), ③ 한국국학진흥원 疾書十三·十四·十五-易經 화경당본, ④ 연세대 학술정보원 易經疾書(고서 582 0-1~5) 연세대본, ⑤ 계명대 동산도서관 易經疾書(180.13-이익) 계명대본, ⑥ Berkeley University 周易疾書 아사미(ASAMI) 문고본, ⑦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星湖先生易經疾書(4909) 규장각본.(이동욱, 「성호의 필사본 질서 11종 이본 연구」, 『태동고전연구』, 제30집, 2013, 8쪽)

> 성호 선생께서 일찍이 십수년 전에 『역설易說』[52]을 지어 완성하였는데, 그 뒤로 미진未盡하다고 여기시어, 작년(1747년)에 다시 (고쳐) 지으셨다. 내가 두 종류의 저술을 모두 빌려와서 정독하였다. 그런데 의론議論이 정밀하여 도처에 이전의 현자들이 드러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초록抄錄하여 『주역통의周易通義』[53]의 뒷 부분에 첨부하였다. 혹시라도 『역경질서』의 견해가 나의 견해와 같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의문점을 적어두어 훗날 다시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기다리고자 한다.[54]

위의 글에서 신후담은 "두 종류의 원고(二本)를 모두 빌려와서 정독하였다."(愚並借二本而窃玩焉)라고 하였다. 이것은 십수년 전에 쓴 『역설易

52) 여기서 '易說'을 반드시 書名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창일은 『역경질서』의 舊本에는 書名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이창일, 「星湖 李瀷 역학 해석의 비판적 계승 – 愼後聃의 상수역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民族文化』, 제65집, 한국고전번역원, 2023, 157쪽)

53) 이창일은 "謹加抄錄, 將以追附于易通義之後, 或與愚見不同者, 因爲之識疑以俟後日更詳."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즉 "이에 삼가 요점을 발췌해서 앞으로 짓게 되는 나의 『주역통의』에 부록으로 삼고자 했고, 혹여 내 생각과 같지 않은 것들은 의문을 기록해서 뒷날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였다."(이창일, 「星湖 李瀷 역학 해석의 비판적 계승 – 愼後聃의 상수역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제65집, 한국고전번역원, 2023, 157쪽) 그런데 『周易通義』는 신후담이 1747년(46세)에 완성한 저서이고, 『李星湖易經疾書纂要』는 1748년에 펴낸 저술이다. 따라서 신후담이 1748년에 쓴 『李星湖易經疾書纂要』에서 그 한 해전인 1747년에 이미 완성된 『周易通義』를 가리켜 "앞으로 짓게 되는 나의 『주역통의』"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將以追附于易通義之後"에서 '將'은 『주역통의』를 미래에 펴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역통의』의 末尾에 덧붙인 본인의 案說을 將次 미래의 어떤 시점에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54) "星湖嘗於十數年前撰易說已成, 後以爲未盡, 昨歲又撰之. 愚並借二本而窃玩焉. 其論之精到處, 多有發前賢所未發者, 謹加抄錄, 將以追附于易通義之後, 或與愚見不同者, 因爲之識疑以俟後日更詳."(『李星湖易經疾書纂要』, 『河濱先生全集』, 「內篇」 III, 아세아문화사, 2007, 133쪽)

說』과 1747년에 고쳐쓴 『역경질서』를 모두 빌려 읽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글의 맥락으로 볼 때, 신후담이 『역경질서』의 구본과 신본을 모두 빌려 읽은 것은 『이성호역경질서찬요』를 저술한 1748년(47세)이지, 『주역상사신편』(구본)을 저술하던 시기는 아니다.[55] 그런데 성호가 『역설』을 쓴 시기는 『역경질서』를 출간한 1747년보다 "십수년 전十數年前"이다. 만약 "십수년 전"을 "이십년 전"과 "십년 전"의 사이로 본다면, 성호가 『역설』을 쓴 시기는 1728년(20년 전)에서부터 1738년(10년 전) 사이가 된다. 『주역상사신편』은 신후담이 1728년(27세)에 저술에 착수해서 1736년(35세)에 완성한 저술이다. 따라서 신후담이 『주역상사신편』(구본)을 집필하던 시기와 성호가 『역경질서』(구본)의 저술을 집필했던 시기는 겹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역경질서』(구본)이 1736년 이전에 나왔다면, 신후담은 『주역상사신편』(구본)을 저술하면서 성호의 『역경질서』(구본)을 참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병휴李秉休(1710~1776)가 쓴 「가장家狀」에 따르면, 성호는 이전에 썼던 『시경질서』와 『역경질서』의 전본前本을 버리고, 만년晩年에 개찬改撰했다고 한다.[56]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 『역경질서』의 서문에는 "정묘성호자근서丁卯星湖子謹書"라고 쓰여 있다.[57] 정묘丁卯년은 1747년이고, 이때에 성호는 이미 67세였으므로 그의 만년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록에 따르면, 성호가 "십수년 전"에 쓴 『역설』은 『역경질서』의 전본前本, 즉 구본舊本에 해당되고, 성

55) 김병애는 "愚並借二本"을 "舊本과 新本을 함께 빌려와서"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異見을 제시했다. 즉 스승에게 舊本과 新本을 동시에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종류의 책을 모두 빌려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같이 빌려본 것은 아니고 時差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후담은 이익으로부터 舊本을 먼저 빌려보고, 新本(改正本)을 나중에 빌려본 것이 된다.

56) "各撰疾書, 而易與詩晩年棄其前本而改撰." 『星湖全書』 附錄 卷1, 「家狀」(이동욱, 「星湖의 필사본 疾書 11종 異本 연구」, 『태동고전연구』 제30집, 2013, 3쪽)

57) 이동욱, 「星湖의 필사본 疾書 11종 異本 연구」, 『태동고전연구』 제30집, 2013, 4쪽.

호가 1747년에 펴낸 『역경질서』는 그가 "십수년 전"에 써놓았던 『역설』의 개정본, 즉 신본新本이 된다.

그런데 『역경질서』에 구본과 신본이 있는 것처럼 『주역상사신편』에도 구본과 신본이 있다. 구본은 1728년에 저술에 착수해서 1736년에 완성한 것이고, 신본은 1758년(57세)에 『계사통의』와 함께 수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은 구본과 신본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최영진·이선경은 『하빈선생연보』에서 신후담이 만년(57세, 1758)에 『주역상사신편』을 수정했다고 하였지만, 『하빈선생전집』(아세아문화사, 2007)에 실린 『주역상사신편』이 만년의 수정을 반영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고 보았다.[58]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이 구본에 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1758년에 신후담이 직접 수정한 개고본改稿本 혹은 그 개고본을 바탕으로 편집된 수정본일 가능성이 높다. 『하빈선생연보』에 따르면, 신후담은 1761년(60세) 11월에 병세가 위독해지자, 베개 옆에 두 개의 상자에 평생의 저술을 넣어두고, 곁에서 시중드는 자에게 "두 상자를 보관하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4일에 세상을 떠났다. 김병애는 이 상자 안에 『주역상사신편』 수정본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다. 왜냐하면 신후담이 1758년(57세)에 『주역상사신편』과 『계사통의』를 직접 수정하였는데, 1761년에 수정하지 않은 구본 『주역상사신편』을 베개 옆 상자에 넣어 두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개정본과 구본이 함께 유통될 경우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상황에서 개정본을 버려두고, 구본을 보존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개정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구본을 폐기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58) 최영진·이선경,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일고찰 – 건괘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2호, 2014, 126쪽.

신후담의 사후死後에 『주역상사신편』은 적어도 두 차례의 편집을 거쳤다. 제1차 편집은 신후담이 세상을 떠나고 한 해 뒤인 1762년(임오년)에 이루어졌다. 이때 신후담의 동생인 신후팽愼後彭·신후은愼後恩과 신후담의 장남인 신성愼俓이 신후담의 유문遺文을 토대로 『돈와선생전서遯窩先生全書』를 편찬하였다. 이때 신신愼信은 겨우 13세였으므로 장남인 신성과 달리 이 작업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역상사신편』의 서두序頭에는 신후담이 타계하고 나서 일 년 뒤인 1762년에 동생 신후은愼後恩이 쓴 서문序文이 수록되어 있다.

> 선생이 역책易簀[59]한 뒤에 사제舍弟인 신후팽愼後彭·신후은愼後恩 등이 선생의 윤자胤子[60]인 장남 신성愼俓 및 뜻을 같이 하는 선비 몇 명과 함께 유문遺文을 수정해서 일본一本을 전사轉寫해 두었으며, 후세에 이 책을 알아줄 이를 기다릴 것을 계획하였다. 오직 돈세무민遯世無悶이 더욱 선생의 평소 지조이므로 삼가 선생의 저서에 이름 하기를 『돈와전서遯窩全書』라고 하였다. 임오년(1762년) 납월臘月[61] 하완下浣[62]에 신후은愼後恩이 삼가 쓴다.[63]

김병애는 지금 남아있는 『주역상사신편』은 바로 이때 편찬했던 『돈와

59) 易簀: 學德이 높은 사람의 죽음 혹은 臨終을 이르는 말이다. 曾子가 죽을 때를 당하여 삿자리를 바꾸었다는 데서 由來한다. 『禮記』의 「檀弓篇」에 나오는 말이다.

60) 胤子: 대를 이을 아들.

61) 臘月: 음력 섣달, 즉 12월을 가리킨다.

62) 下浣: 한 달 가운데 21일에서 말일까지의 기간, 즉 '下旬'과 같은 뜻이다.

63) "先生易簀後, 舍弟後彭後恩等, 與先生胤子愼俓及夫同志之士若而人, 共謀修正遺文, 寫置一本, 以竢來世, 而惟夫遯世無悶者, 尤爲先生之素操, 故謹名先生之書, 曰遯窩全書云, 壬午臘月下浣, 後恩謹題."

선생전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64] 그런데 『주역상사신편』의 미제괘未濟卦가 끝난 부분에 신신愼信(1749~1837)이 신묘년辛卯年(1831)에 쓴 「지識」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 『괘시도설卦蓍圖說』은 정묘년丁卯年(1747)에 완성되었는데, 이것은 불초자不肖子 고孤[65]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였다. 지금 신묘년辛卯年(1831)에 불초자 신신愼信(1749~1837)은 이제 (81세가 되는) 망구지년望九之年을 맞이하여 구본舊本을 베껴서 다시 썼다.(謄於舊本而復書之) 지금 신묘년은 이전에 『괘시도설卦蓍圖說』을 저술한 정묘년丁卯年(1747) 이후로 85년이 된 해이다.[66]

위의 글에서 신신愼信(1749~1837)은 "망구지년望九之年을 맞이하여 구본舊本을 베껴서 다시 썼다."(謄於舊本而復書之)라고 하였다. '망구지년'은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 81세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런데 신신은 1749년도에 출생했으므로, '망구지년'은 1831년(순조31) 신묘년辛卯年이 되며, 신후담의 사후死後 70년이 된다. 앞서 1762년(임오년)에 신후팽愼後彭·신후은愼後恩·신성愼俔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본寫本 한 본을 만든 것이 『돈와선생전서』의 제1차 편찬이라면, 1831년(신묘년)에 신신이 구본에 의거해서 다시 등본謄本을 만든 것은 제2차 편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차 편집에서는 '유문遺文'이라는 말이 쓰였고, 제2

64) 김병애, 『하빈 신후담 周易象辭新編-上經譯註』,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협동과정, 2016, 15쪽.

65) '孤'는 아버지가 죽어 없는 아이. 또 부모가 모두 없는 아이를 뜻한다. 여기서는 신후담의 아들 愼信(1749~1837)을 가리킨다.

66) "卦蓍圖說, 蓋成於故丁卯, 此不肖孤未生時, 今於辛卯, 不肖以望九之年, 謄於舊本而復書之, 自辛卯拒故丁卯爲八十五年矣."(『河濱先生全集』, 卷六, 『周易象辭新編』, 470쪽)

차 편집에서는 구본舊本이라는 말이 쓰였다. 김병애는 '유문'과 '구본'을 구별하여, 전자는 신후담이 남긴 원본을 가리키는 반면에, 후자는 그 원본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필사본을 가리킨다고 보았다.[67] 신신愼信(1749~1837)의 제2차 편집본에서 주목할 점은 『괘시도설卦蓍圖說』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이다. 『괘시도설』은 신후담이 정묘년丁卯年(1747)에 완성한 저서이다. 그런데 구본舊本 『주역상사신편』은 신후담이 1736년에 최종 탈고한 저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괘시도설卦蓍圖說』이 포함되어 있었을 리 없다.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에서 『괘시도설』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현행본이 결코 구본舊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괘시도설』에 대한 언급은 신후담이 1758년에 구본을 "약가수삭略加修削"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68] 그리고 신신愼信의 편집하면서 남긴 소회所懷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은 1831년에 신신愼信에 의한 제2차 편집본임이 틀림없다. 신신의 제2차 편집본은 편집자의 견해가 신후담의 역주易注와 혼합되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만약 편집자의 견해가 이처럼 임의로 삽입된다면, 과연 『주역상사신편』의 원형이 훼손당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은 신신愼信에 의한 제2차 편집을 거치면서 원형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양승민梁承敏이 쓴 「하빈선생전집해제」에 따르면, 『주역상사

67) 김병애, 『하빈 신후담 周易象辭新編-上經譯註』,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협동과정, 2016, 15쪽.

68) 심사자 한 분은 "괘시도설은 1758년에 舊本을 신후담이 직접 略加修削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아마도 신후담은 『주역상사신편』의 未濟卦까지 완성하고 나서 象數의 이해를 돕기 위해 『卦蓍圖說』을 附錄으로 넣었을 것이다. 따라서 1831년(辛卯)에 愼信에 의한 2차 筆寫 때에도 이 圖解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나중에 逸失된 것으로 보인다."

신편』에는 몇 종의 이본異本이 있다.[69] 아세아문화사에서 발간한 『주역상사신편』에서는 권일卷一에서 권사卷四까지는 원본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복사본을 수록하였고, 권오卷五에서 권십卷十까지는 신용일愼鏞日 박사 소장본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주역상사신편』의 출처미상의 복사본은 신용일 박사 소장본[70]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한다. 신용일 박사 소장본 『주역상사신편』은 10권 전체를 모두 갖춘 완질본完帙本이지만, 다만 권오卷五에서 권십卷十까지는 필체가 더 정미精美한 출처불명의 복사본을 『하빈선생전집』(아세아문화사, 2007)에 수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신신愼信이 신묘년辛卯年(1831)에 쓴 「지識」는 권구卷九에 수록되어 있다. 어쨌든 『주역상사신편』의 미제괘未濟卦가 끝난 부분에 신신愼信(1749~1837)이 신묘년辛卯年(1831)에 쓴 「지識」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은 1831년(신묘년)에 신신愼信에 의한 제2차 편집을 거친 것임이 분명하다.

『하빈선생연보』에 따르면 『주역상사신편』은 원래 7권 체제였다.[71] 그러나 양승민은 『주역상사신편』이 원래 10권 체제이며, 7권본은 이본異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승민에 따르면 10권본 중에서 권9는 책의 형태와 필사형태가 앞의 여덟 권과는 전혀 다르며, 9권까지는 권 표시가 있으나, 마지막 권에는 권10이라는 권卷의 표시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돈와주역상사신편권지칠종遯窩周易象辭新編卷之七終"이라는

69) 梁承敏, 「河濱先生全集解題」, 『河濱先生全集』 卷五, 13~15쪽.

70) 『家塾淵源』의 末尾에 『家塾淵源借錄始末』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愼鏞日 박사의 祖父인 故 신규성 선생이 轉寫해 둔 문헌이라고 한다. 『家塾淵源借錄始末』에 따르면, 신용일 박사 소장본은 원래 三從祖 愼炳熙씨 댁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이며, 이것을 하빈의 방계 후손인 신규성이 빌려서 轉寫해 둔 것인데, 현재 그의 손자인 신용일 박사 댁에 남아 있게 된 것이라고 한다.(梁承敏, 「河濱先生全集解題」, 『河濱先生全集』 卷五, 13쪽)

71) "象辭新編, 繫辭傳, 說卦傳, 序卦傳, 雜卦解, 成於是年, 並前上下經解, 凡七卷."(『河濱先生年譜』, 『河濱先生全集』 卷九, 아세아문화사, 2007, 41쪽)

말이 써 있는 것으로 보아서, 10권본과는 다른 7권본으로 된 이본異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72] 그러나 김병애는 『주역상사신편』이 원래 10권본이 아니라, 7권본이었는데, 후손이 전사轉寫하는 과정에서 7권이 10권으로 편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왜냐하면 『하빈선생연보』에 "상사신편계사전설괘전서괘전잡괘전성이시년병전상하경해범칠권象辭新編·繫辭傳·說卦傳·序卦傳·雜卦傳, 成於是年, 並前上下經解, 凡七卷."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역상사신편』의 '권지일卷之一'(乾-蒙), '권지이卷之二'(需-否), '권지삼卷之三'(同人-噬嗑)'까지는 '권지일종卷之一終', '권지이종卷之二終', '권지삼종卷之三終'이라는 말이 있다. '권지사卷之四'(賁-離), '권지오卷之五'(咸-蹇), '권지육卷之六'(解-萃)에는 '권지사卷之四', '권지오卷之五', '권지육卷之六'이라는 권수제卷首題가 적혀 있으나, 권말卷末에 '권지□종卷之□終'이라는 권말어卷末語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책의 말미末尾에 "돈와주역상사신편권지칠종병진정저遯窩周易象辭新篇卷之七終丙辰正著"라고 적혀 있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표기된 것은 "육六"까지이니, 각 권의 분량에 격차가 있더라도 10책이 아니라, 7권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병진정저丙辰正著"라는 문구도 문제이다. 이 문구를 저자인 신후담 본인이 저술을 끝낸 시기로 이해한다면, 신후담은 1736년 병진丙辰년에 『주역상사신편』을 완성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하빈선생연보』에서는 『주역상사신편』이 1734년 갑인甲寅년에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빈선생연보』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필자는 1734년에 신후담이 『주역상사신편』을 완성한 것은 맞다고 본다. 1734년에 성호가 신후담에게 보낸 편지 「답신이로答愼耳老·갑인

72) 양승민, 「하빈선생전집해제」 권9, 13~14쪽.

甲寅(1734)」에 성호가 신후담이 보낸 『주역상사신편』을 읽은 소감을 말한 부분이 있다. 신후담이 성호에게 『주역상사신편』을 보냈을 때는 아마도 완성된 저서를 보냈을 것이다. 따라서 『하빈선생연보』의 기록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다만 "병진정저"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1734년에 『주역상사신편』을 완성한 이후로도 추가적인 가필加筆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필加筆은 매우 제한적 범위내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4. 『주역상사신편』·『역경질서』·「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답신이로문목(무진)」 등 4종 자료의 대조 분석

성호 이익이 1747년에 펴낸 『역경질서』의 출간은 신후담에게 『주역상사신편』과 『역경질서』의 학설을 비교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했다. 신후담은 1748년(47세)에 『이성호역경질서찬요李星湖易經疾書纂要』를 써서 『역경질서』와 관련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저술의 취지는 성호의 『역경질서』에 상세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학술적 토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73] 신후담은 이 저서에서 『역경질서』의 서문과 64괘에 대해 요점을 간추리고, 특히 25괘[74]에 대해서는 안설案說을 덧붙였다.[75] 아울러 『역경질서』와 『주역상사신편』를 비교하고, 그 유사점

73) "二十四年 戊辰 先生 四十七歲. 讀星湖所撰易經疾書有纂要. 因上星湖書論易經疾書 未詳處."(愼後聃, 『河濱先生年譜』, 『河濱先生全集』 卷九, 아세아문화사, 2007, 87쪽)

74) 신후담이 [愚按]의 注를 덧붙인 25괘는 다음과 같다.; [1]乾, [2]坤, [3]屯, [6]訟, [9]小畜, [10]履, [13]同人, [15]謙, [20]觀, [21]賁, [24]復, [26]大畜, [27]頤, [32]恒, [33]遯, [34]大壯, [36]明夷, [39]蹇, [42]益, [46]升, [48]井, [54]歸妹, [56]旅, [61]中孚, [64]未濟.

75) 이창일, 「성호 이익 역학 해석의 비판적 계승 – 신후담의 상수역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과 차이점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다.[76] 신후담은 『역경질서』를 정독한 뒤에,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를 써서 『역경질서』에 관련된 의문을 성호에게 질의하였다.[77] 성호가 신후담에게 보낸 편지는 『성호선생전집』 권지이십이卷之二十二에 3통의 편지가 보존되어 있고,[78] 권지이십삼卷之二十三에 18통의 편지가 남아 있다.[79] 이 중에서 1747년에 『역경질서』가 나온 이후에 성호가 보낸 편지는 「답신이로문목答愼耳老問目」(戊辰)(A)(영조24년, 1748년), 「답신이로答愼耳老」(戊辰)(B)(영조24년, 1748년), 「답신이로答愼耳老(己巳)(영조25년, 1749년)의 세 통이며, 『성호선생전집』 권지이십삼卷之二十三에 실려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답신이로문목」(무진)(A)(영조24년, 1748년)인데, 이것은 신후담이 성호에게 보낸 편지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80]에 대한 성호의 답신이다. 이 두 통의 편지는 통행본 『주역상사신편』이 개고본 『주역상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제65집, 2023, 156쪽.

76)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Ⅱ)」, 『한국철학논집』, 제48집, 2016, 175쪽.

77) "二十四年, 戊辰, 先生, 四十七歲. 讀星湖所撰易經疾書有纂要. 因上星湖書論易經疾書, 未詳處."(愼後聃, 『河濱先生年譜』, 『河濱先生全集』 卷九, 아세아문화사, 2007. 83쪽) 『이성호역경질서찬요』와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는 『하빈선생전집』 卷三에 수록되어 있다.

78) 『星湖先生全集』(卷之二十二)에 수록된 세 통의 편지 목록은 다음과 같다: [1][答愼耳老(乙巳)](영조1년, 1725), [2][答愼耳老小學問目(丙午)](영조 2년, 1726), [3][答愼耳老(甲寅)](영조10년, 1734)

79) 『星湖先生全集』(卷之二十三)에 수록된 편지 목록은 다음과 같다. [1][答愼耳老(甲寅)](영조10년, 1734년), [2][與愼耳老(乙卯)](영조11년, 1735년), [3][答愼耳老問目], [4][答愼耳老(丙辰)](영조12년, 1736년), [5][答愼耳老(丙辰)](영조12년, 1736년), [6][答愼耳老(丁巳)](영조13년, 1737년), [7][與愼耳老(戊午)](1738, 영조14), [8][答愼耳老(己未)](영조15년, 1739년), [9][與愼耳老(辛酉)(A)](영조17년, 1741년), [10][答愼耳老(辛酉)(B)](영조17년, 1741년), [11][答愼耳老(辛酉)(C)](영조17년, 1741년), [12][答愼耳老(辛酉)(D)](영조17년, 1741년), [13][與愼耳老(辛酉)(E)](영조17년, 1741년), [14][答愼耳老(壬戌)](영조18년, 1742년), [15][與愼耳老(乙丑)](영조21년, 1745년), [16][答愼耳老問目(戊辰)(A)](영조24년, 1748년), [17][答愼耳老(戊辰)(B)](영조24년, 1748년), [18][答愼耳老(己巳)](영조25년, 1749년).

80) 「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 『河濱先生全集』, 內篇 Ⅲ, 아세아문화사, 2006, 140~154쪽.

사신편』인지를 고찰하는 데에 대해서도 중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이 두 통의 편지를 비교해 보면, 성호와 신후담은 역학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먼저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를 통해 신후담이 성호에게 제기한 의문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으로 「답신이로문목答愼耳老問目」(戊辰)을 통해 신후담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성호의 답변을 살펴보기로 하자. 성호와 신후담의 편지에서 토론된 쟁점에는 (가)칠팔七八과 구육九六의 문제, (나)현황玄黃의 음양 배속 문제, (다)곤괘坤卦 육오六五의 황상黃裳의 설, (라)괘명卦名의 '대大'자의 의미 등이 있다. 필자는 위의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주역상사신편』·『역경질서』·「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답신이로문목(무진)」 등 네 가지 자료를 대조해서, 신후담이 질의한 문제가 무엇이며, 성호는 이 질의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했는가, 그리고 『주역상사신편』과 『역경질서』의 견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에서 1748년(47세)에 성호가 신후담의 역학관에 대하여 비판했던 문제점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창일은 신후담이 『주역상사신편』을 수정한 계기를 성호 이익의 『역경질서』의 출간에서 찾았다. 즉 1747년에 이익이 『역경질서』를 펴내었을 때, 신후담은 성호에게 서신을 보내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였으며, 성호는 서신에서 신후담의 견해를 반박하거나 비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후담은 자신의 이전의 견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다.[81] 서근식도 1747년의 성호의 『역경질서』 간행이 신후담이 『주역상사신편』을 57세에 다시 수정

81) 이창일, 「성호 이익 역학 해석의 비판적 계승 – 신후담의 상수역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제65집, 2023, 155쪽.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82] 이창일과 서근식의 견해를 따르면, 신후담은 1747년에 나온 『역경질서』 신본新本을 읽고, 1734년(33세)에 쓴 『주역상사신편』(구본)의 학설을 일부 수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며, 그 수정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 1758년의 『주역상사신편』의 개고본改稿本이 된다. 이것은 분명 매우 흥미로운 견해이다. 성호가 지적한 신후담 학설의 문제점이 현재 남아 있는 『주역상사신편』에서 수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이 1758년에 개고改稿를 거친 수정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제3장에서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이 신후담이 1734년(33세)에 탈고했던 구본舊本 『주역상사신편』이 아니라 개고본改稿本이라는 것을 이미 논증한 바 있다. 따라서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이 개고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 논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에서 신후담이 성호의 비판을 수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현행본이 구본舊本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신후담이 1758년(57세)에 구본舊本 『주역상사신편』을 수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신후담이 구본舊本 『주역상사신편』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호의 비판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신후담은 『주역상사신편』이 『역경질서』보다 어떤 점에서 더 탁월한 저술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신후담은 자기 이론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했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가 이전에 썼던 저서를 수정할 때, 성호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1748년에 성호와 하빈 사이에 토론되었던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 문제는 『주역상사신편』·『역경질서』·「상성호

82)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Ⅱ) – 하빈 신후담의 『주역상사신편』에 나타난 주역 해석 방법」, 『한국철학논집』, 제48집, 2016, 170쪽.

논역경질서별지」·「답신이로문목」(무진) 등 4종 자료에 대한 대조 분석을 통해 검토될 것이다.

(가)칠팔七八과 구육九六의 문제

周易象辭新編	초구初九에서 상구上九까지 효위爻位를 따라가며 변한 것을 논하였는데, 용구用九는 효위의 수를 붙이지 않고 구九만을 말하였으니, 여섯 효가 모두 변한 것이다. 건괘乾卦의 여섯 효가 모두 변하면 곤괘坤卦가 되기 때문에 『춘추좌씨전』에서 이것을 인용하여 '건지곤乾之坤'이라고 하였다. 여섯 효가 모두 변한 것이 용구用九이니, 본체가 용칠用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문장을 대조해보면 드러난다.[83](自初九至上九, 逐爻位, 而論其變也. 用九不繫爻位之數而只言九, 則六爻之盡變者也. 乾之六爻盡變則爲坤, 故春秋傳引此而曰: '乾之坤', 六爻盡變爲用九, 則知其本體之爲用七, 互文以見也.)[84]
	용육用六은 곤괘坤卦가 변하여 건괘乾卦가 된 것이니, 용구用九인 건괘乾卦가 변하여, 곤괘坤卦가 됨과 같다. 변한 것을 용육用六이라고 하였다면, 본체本體가 용팔用八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두 문장을 대조해보면 드러난다. ……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에만 용구用九와 용육用六이 있고, 나머지 괘는 구九와 육六이 섞여 있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괘의 경문에는 용구用九와 용육用六이라는 글자가 없다.[85](用六則坤變爲乾, 猶用九之乾變爲坤也. 以其變者爲用六, 則知其本體之用八, 互文以見之. …… 惟乾坤用九用六, 餘卦則以九六之雜而不用, 故於經無文.)[86]

83) 김병애, 『河濱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上經 譯註』, 2016, 69쪽.
84) 『周易象辭新編』, 『河濱先生全集』 卷五, 17쪽.
85) 김병애, 『河濱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上經 譯註』, 2016, 122쪽.
86) 『周易象辭新編』, 『河濱先生全集』 卷五, 63~64쪽.

易經疾書	역易의 도道는 칠七·팔八을 체體로 삼고, 구九·육六을 용用으로 삼는다. 한 획으로 말하면, 건乾의 육획六畫은 칠七을 체體로 삼지 않음이 없으니, 현룡見龍·비룡飛龍 등의 종류는 또한 구九를 용用으로 쓰지 않음이 없다. 곤坤의 여섯 획은 팔八을 체體로 삼지 않음이 없으니, "직방直方"·"황상黃裳" 등의 종류는 육六을 용用으로 쓰지 않음이 없다. 고요하게 있을 때에는 칠七·팔八이 되고, 움직일 때에는 구九와 육六을 쓰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의 괘로 말하면 그 체體가 순전한 칠七이거나 순전한 팔八인 것은 오직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의 두 괘뿐이다. 그러므로 구九와 육六을 쓰는 괘도 오직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의 두 괘에만 있다. 그 밖의 나머지 괘의 경우는 고요하더라도 이미 칠七·팔八의 체體에 순전하지 못하니 움직이더라도 어찌 九 · 六의 用이 있겠는가? 자세한 것은 『시괘고蓍卦考』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易經疾書』, 乾卦)(易之道, 以七八爲體, 九六爲用, 以一畫言則乾之六畫, 莫非體七, 其見龍飛龍之類, 又莫非用九, 坤之六畫, 莫非體八, 其直方黃裳之類, 又莫非用六, 其靜也七八, 其動也九六, 非用九用六而何? 以一卦言則其體之純於七八, 惟乾坤二卦. 故其用之九六, 亦惟乾坤二卦有之, 其餘則靜, 旣未純於七八之體, 動豈有九六之用乎? 詳在蓍卦考不贅.)(『易經疾書』, 乾卦)
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	건곤乾坤은 칠팔七八을 체體로 삼고, 구육九六을 용用으로 삼는다는 설은 참으로 옳습니다. 다만 체용體用의 설은 후세에 나온 것이니, 어찌 용구用九와 용육用六의 '용用'자를 체體자와 짝을 지워 썼겠습니까? 건곤乾坤이 칠팔七八을 써서 본괘本卦가 되고 구육九六을 써서 변괘變卦가 되니 이와 같다면 칠팔구육七八九六이 씀(用)이 아닌 것이 없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乾坤七八爲體, 九六用之說, 固是矣. 但體用之說, 出於後世, 安知用九用六之用字, 必配體字爲說耶? 且乾坤用七八而爲本卦, 用九六而爲變卦, 如是則七八九六, 無非是用, 未知如何?[87])

答愼耳老問目戊辰

체용體用의 뜻에 대해서는 일찍이 의심해 보지 않았으니, 그대가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괘획卦畫에서 정靜한 것은 체體이고 동動한 것은 용用입니다. 간괘艮卦·태괘泰卦·준괘屯卦·예괘豫卦의 팔八에 의거하면 칠七·팔八의 정靜한 것이 체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용구用九·용육用六에 의거하면 구九·육六이 용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건지곤乾之坤과 곤지건坤之乾만이 용구用九와 용육用六이 되니, 다른 괘에는 이런 예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靜할 때에 칠七과 팔八에 순수하지 않은 것은 동動할 때에 용구用九와 용육用六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획畫에 동動·정靜이 있으니, 괘卦에도 반드시 동動·정靜이 있습니다. 간괘艮卦·태괘泰卦·준괘屯卦·예괘豫卦에 의거하면 모두 체體가 칠七·팔八에 순수한 것이니, 건괘乾卦·곤괘坤卦 외에 여섯 획이 변하는 것은 서법筮法에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지극히 분명한 것 같으니, 칠七·팔八이 용用이 된다는 설은 없습니다. 『시괘고蓍卦考』에 상세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략만 드러냈거나, 혹은 글에 미비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體用之義。未曾致疑. 未知所以疑者何居. 凡卦畫靜則體動則用. 据艮泰屯豫之八則知七八之靜者爲體. 据用九用六則知九六之爲用. 惟乾之坤, 坤之乾. 爲用九用六. 則知佗卦之無此例. 其靜時不純乎七八者. 動時當云用九六矣. 不成道理也. 畫有動靜則卦必有動靜. 而据艮泰屯豫皆體純乎七八者則知乾坤之外六畫變者筮法不用也. 此義似極分明. 七八爲用無是說. 詳在蓍卦考. 故此但略著之. 或文有未備而然矣.[88])

신후담은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에서 "건곤乾坤은 칠七·팔八을 체體로 삼고, 구九·육六을 용用으로 삼는다는 설은 참으로 옳다."라고 말

87) 「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河濱先生全集』 卷三, 140~141쪽.

88) [答愼耳老問目(戊辰)](https://www.krpia.co.kr/)

한다. 이것은 성호가 "역易의 도道는 칠七·팔八을 체體로 삼고, 구九·육六을 용用으로 삼는다."라고 한 것에 대해 일단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신후은 "체용體用의 설은 후세에 나온 것이니, 어찌 용구用九·용육用六의 '용用'자를 '체體'자와 배대配對해서 썼겠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신후담은 "건곤乾坤이 칠七·팔八로써 본괘本卦를 삼는다면, 용구用九·용육用六은 변괘變卦가 될 것이니, 이를 참조한다면, 칠七·팔八·구九·육六은 용用이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신후담의 발언의 진의眞意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마도 신후담의 의도는 칠팔七八·구육九六을 체體-용用에 배대配對시키는 방식에 반대하고, 본괘本卦와 변괘變卦에 배대시키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철학사적으로 본다면 체용體用의 설은 위진魏晉 시대 초기에 왕필王弼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공周公이 괘상卦象에 역사易詞를 연계시킬 때에 그런 학설이 있었을 리 없다. 만약에 '용用'을 '체體'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단순히 '사용使用'의 '용用'의 뜻으로 이해한다면, 칠七·팔八·구九·육六에 대해서 모두 '용用'자를 쓸 수 있다. 실제로 신후담은 용구用九와 용육用六이라는 용어가 쓰인 것을 근거로 용칠用七과 용팔用八이라는 용어도 썼다. 신후담은 칠七·팔八과 구九·육六의 관계를 체體와 용用이 아니라, 본괘本卦와 변괘變卦의 관계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경우에 칠팔七八이 본괘本卦에 해당된다면, 구육九六은 변괘變卦가 된다.

그러나 성호는 체용體用의 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후담이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답신이로문목答愼耳老問目·무진戊辰」에서 성호의 관점은 명확하다. 즉 모든 괘획卦畫에서 정靜한 것은 체體이고, 동動한 것은 용用이다. 체용體

用의 정靜·동動을 수數와 연계시키면, 칠七·팔八의 정靜은 체體가 되고, 구九·육六의 동動은 용用이 된다. 성호의 관점에서 보면 신후담이 용칠用七과 용팔用八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용어 사용법이다. 왜냐하면 칠七과 팔八은 기본적으로 체體의 정靜한 상태를 가리키는 숫자이지, 용用의 동動한 상태를 가리키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용구用九·용육用六은 음과 양이 뒤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같은 종류만으로 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통행본 『주역상사신편』에서 신후담은 용칠用七·용팔用八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만약 신후담이 성호의 지적을 수용하였더라면 1758년에 『주역상사신편』을 개고改稿하면서 해당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에는 용칠用七·용팔用八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이 1734년(33세)에 완성한 구본舊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신후담은 1758년에 『주역상사신편』을 일부 수정하여 개고본改稿本을 만들었다. 그러나 신후담이 이때 개정改正 작업을 하면서도 다른 곳은 수정하면서도 용칠用七·용팔用八의 용어법과 관련해서는 성호의 지적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을 수도 있다.

(나) 현황玄黃의 음양 배속 문제

89) 김병애, 『河濱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上經 譯註』, 2016, 120쪽.

90) 『周易象辭新編』, 『河濱先生全集』 卷五, 61~62쪽.

91) 김병애, 『河濱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上經 譯註』, 2016, 135쪽.

92) 『周易象辭新編』, 『河濱先生全集』 卷五, 75쪽.

周易象辭新編	검은 색은 하늘의 색이고, 누런 색은 땅의 색이니, 피가 검고 누르다는 것은 음양이 모두 상처를 입은 상이다. 대체로 음이 성하여 양과 다투면 양이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음도 스스로 상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象을 드리워 경계한 것이다.[89](玄, 天色, 黃, 地色, 血之玄黃, 陰陽俱傷之象也. 蓋陰盛而爭乎陽, 非獨傷陽, 而亦有以自致其傷, 故垂象以警之也.[90])
	[우안愚按] 음이 양을 의심하나 그래도 동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고 누런 피를 칭하여 분별하였다. 검은 것은 하늘의 색이니 곧 양이고, 누런 것은 땅의 색이니 곧 음이므로 음과 양이 모두 손상됨을 말하였다.[91]([愚按] 陰雖疑陽, 而猶未離其類, 故稱血之玄黃以辨之, 玄者, 天之色, 即陽也. 黃者, 地之色, 即陰也. 言陰陽俱傷也.[92])
易經疾書	음양陰陽이 서로 싫어하고 의심하면, 그 세력이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다. 음양이 한 번 성盛하고 한 번 쇠衰하여,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용龍이라고 한 것은 그 양陽을 드러낸 것이요, 곤상육坤上六에서 "미리류未離類"라고 한 것은 건구사乾九四에서 "비리군非離群"(그 무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 "류類"라고 한 것은 빈마牝馬이니, 지류地類에 속하는 종류이다. 건구사乾九四에 용龍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용의 무리를 떠난 것이 아니며, 곤상육坤上六에서 마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말의 무리를 떠난 것이 아니다. 음양을 말하면서 혈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용龍이 싸우면, 마馬도 싸우니, 그 가운데 현玄은 용혈龍血의 색깔이고, 황黃은 마혈馬血의 색깔이다. 마馬가 지류地類에 속한다면, 용龍은 천류天類에 속하니, 천지天地가 함께 다친 것은 아니다.(『역경질서』, 곤괘坤卦 상육上六) 「문언전」)(陰陽猜疑, 其勢必戰, 陰陽一盛一衰一, 未嘗繼絶, 稱龍以著其陽也. 未離類, 與乾九四非離群, 相似, 類即牝馬地類之類, 謂乾九四不言龍而非離龍群, 坤上六不言馬而非離馬類也. 陰陽無血言, 龍戰則馬戰, 在其中玄是龍血, 黃是馬血, 馬又是地類, 則龍又是天類 , 非謂天地俱傷也.)(坤卦, 上六, 「文言傳」, 『易經疾書』)

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	곤괘坤卦「문언전文言傳」에서는 "여전히 그 같은 부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피(血)라고 했다."(猶未離其類也, 故稱血.)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피(血)의 (검고 누런 색) 현황玄黃은 그 위位로 변별辨別하여, 음류陰類와 양류陽類로 나눈 것입니다. 만약 선유先儒들의 말과 같이 음류陰類라고 여겼기 때문에 '혈血'이라고 칭한 것이라면, 현玄·황黃을 모두 음陰에 배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치와 거리가 먼 듯합니다만, 저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坤文言猶未離其類也. 故稱血. 蓋謂稱血之玄黃以辨位陰類陽類也. 若如先儒說以爲陰類, 故稱血, 則玄黃當並屬於陰耶. 此恐有遠理旨, 未知如何.[93])
答愼耳老問目戊辰	음류陰類와 양류陽類라는 설은 그럴 듯하지만 하늘의 검은 색(天玄)은 음류陰類에 소속시킬 수 없습니다. 건괘乾卦는 모두 용의 무리(龍類)이고, 곤괘坤卦는 모두 말의 무리(馬類)인데, 건괘乾卦 구사九四의 「문언전」에서 용龍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떠난 것이 아니다."(非離群也)라고 한 것이고, 곤괘坤卦 상육上六의 「문언전」에서는 말(馬)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리를 떠나지 않았다."(未離其類也)라고 한 것입니다. 그 실상은 용과 말(馬)이 싸워서 둘 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가 검고 누르다."라고 한 것입니다.[94](陰類陽類之說似然. 天玄不可屬之陰類. 乾皆龍羣. 坤皆馬類. 九四不言龍. 故曰非離羣也. 上六不言馬. 故曰未離其類也. 其實龍與馬戰兩傷. 故稱玄黃.[95])
	곤괘坤卦의 상육上六은 음陰이 극에 달하여 양陽이 생기는 것이니 그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항룡亢龍은 양이 극에 달한 것이니, 음과 양이 함께 의심을 품어서 서로 싸우는 뜻은 없는 듯합니다.[96](坤上六陰極陽生。所以戰也。亢龍是陽極。恐未有陰陽並疑而相戰之義.[97])

신후담은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에서 선유先儒의 학설을 따르면, 피(血)의 현황玄黃은 그 위位로 변별辨別하여, 음류陰類와 양류陽類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경우에 현황玄黃은 당연히 음류陰類에 배속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유의 학설을 따를 경우에 이것은 이치에서 멀리 벗어난 것이 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고 질의하였다. 여기서 선유先儒라고 한 것은 아마도 주희朱熹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희는 "피는 음陰에 속하니, 기氣는 양이고, 피(血)는 음이다"(血, 陰屬, 蓋氣陽而血陰也.)라고 하였기 때문이다.[98] 이 경우 피의 색이 현황玄黃이므로 현玄과 황黃의 색이 모두 음류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서 "천현이지황天玄而地黃"이라고 한 것과 어긋나게 되므로, 신후담은 성호의 견해를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성호는 「답신이로문목答愼耳老問目(무진)」에서 "음류陰類와 양류陽類라는 설은 그럴 듯하지만 하늘의 검은 색(天玄)은 음류陰類에 배속配屬시킬 수 없습니다."(陰類陽類之說似然. 天玄不可屬之陰類.)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그런데 질문의 맥락으로 보면, 신후담은 처음부터 선유先儒의 학설에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검은 색을 음류에 배속시키는 견해가 옳다고 여기지 않았다. 실제로 신후담은 『주역상사신편』에서 "검은 색은 하늘의 색이고, 누런 색은 땅의 색이니, 피가 검고 누르다는 것은 음양이 모두 상처를 입은 상이다."(玄,

93) 「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 『河濱先生全集』 卷三, 141쪽.

94) [答愼耳老問目(戊辰)])(https://www.krpia.co.kr/)

95) [答愼耳老問目(戊辰)])(https://www.krpia.co.kr/)

96) [答愼耳老問目(戊辰)])(https://www.krpia.co.kr/)

97) [答愼耳老問目(戊辰)])(https://www.krpia.co.kr/)

98) "血, 陰屬, 蓋氣陽而血陰也. 玄黃, 天地之正色, 言陰陽皆傷也."(成百曉, 『懸吐完譯 周易傳義』 上, 傳統文化硏究會, 1998, 212~213쪽)

天色, 黃, 地色, 血之玄黃, 陰陽俱傷之象也.)라고 하였다. 그런데 성호도 하늘의 검은 색(天玄)은 음류陰類에 배속配屬시킬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신후담과 성호의 견해를 대립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 곤괘坤卦 육오六五의 황상黃裳

周易象辭新編	황黃은 중색中色이니, 곤괘坤卦의 육오六五는 중덕中德이 있으면서, 한 괘의 으뜸에 거하였으니, 여러 효의 주체가 되어 그 도道가 빛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색色으로 말하였다. 상裳은 의衣에서 하체下體에 입는 옷이니, 건乾은 위에 있어서 상의上衣가 되고, 곤坤은 아래에 있어서 상裳이 된다. 「대전大傳」에 "의상衣裳을 드리우고 있음에 천하가 다스려졌으니,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에서 취하였다."(垂衣裳而天下治, 取諸乾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99] (黃, 中色, 五有中德而居一卦之宗, 爲衆爻之主, 其道光顯, 故必以色言. 裳者, 衣之下飾, 乾上而爲之衣, 坤下而爲之裳. 大傳曰, "垂衣裳而天下治, 取諸乾坤." 是也.[100])
易經疾書	「대전大傳(즉 계사전)」에서 "수의상이천하치垂衣裳而天下治, 개취저건곤蓋取諸乾坤"이라고 했으니, 건곤乾坤이 곧 의상衣裳이 된다. 곤坤에 상裳의 상象이 있으므로 상裳이 의衣를 잇는 것은 곤坤이 건乾을 잇는 것과 같다. 건구오乾九五에 성군聖君의 상象이 있고, 곤육오坤六五에 현비賢妃의 상象이 있다. 『시경』「패풍邶風」「녹의綠衣」에 "녹의황상綠衣黃裳"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현비賢妃가 부정不正한 군주를 받드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도 또한 방증旁證이 된다.(『역경질서』, 곤괘坤卦 육사六四)(大傳云, 垂衣裳而天下治, 蓋取諸乾坤, 乾坤者, 衣裳, 坤有裳象而裳之承衣, 如坤之承乾也. 乾九五有聖君之象, 坤六五有賢妃之象, 詩曰, 綠衣黃裳, 謂賢妃承不正之君也. 亦可以旁證.)(『易經疾書』, 坤卦 六四)

99) 김병애, 『河濱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上經 譯註』, 2016, 119쪽.
100) 『周易象辭新編』, 『河濱先生全集』 卷五, 60쪽.

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	곤괘坤卦 육오六五의 "황상黃裳"에 이르러서는 건괘乾卦 구오九五의 "비룡飛龍"을 이어받은 것이고, 곤괘坤卦 상육上六의 "용전龍戰"은 건괘乾卦 상구上九의 "항룡亢龍"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그 상象이 더욱 명확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至於六五黃裳, 承九五之飛龍, 上六龍戰戰上九之亢龍, 其象尤明如是看, 未知如何.)[101]
答愼耳老問目戊辰	곤괘坤卦 육오六五에 대해 어찌 그대의 뜻을 채택하지 않겠습니까? 「대전大傳(즉 계사전)」에서 의상衣裳을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에서 취하였으니, "황상黃裳"은 바로 후비后妃의 상징입니다. 나(이익李瀷)의 생각으로는 더욱 녹의綠衣에 황상차림이라는 것이, 중덕中德을 지닌 장강莊姜이 부정不正한 임금을 만난 것입니다. 『역경질서』를 가져다 보기 바랍니다.(六五豈不取君義. 大傳衣裳取諸乾坤. 黃裳卽后妃之象. 瀷更以綠衣黃裳爲莊姜中德遇不正之君. 須取疾書看.)[102]

성호는 "곤괘坤卦 육오六五에 대해 어찌 그대의 뜻을 채택하지 않겠습니까?"(六五豈不取君義)라고 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성호가 신후담의 『주역상사신편』의 곤괘坤卦 육오六五의 뜻을 취해서 『역경질서』에 가져다 썼다는 뜻인 것 같다. 실제로 곤괘坤卦 육오六五에 관한 설을 비교해 보면, 『역경질서』와 『주역상사신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1) 「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 『河濱先生全集』 卷三, 142쪽.

102) [答愼耳老問目(戊辰)](https://www.krpia.co.kr/)

(라) 괘명卦名의 '대大'자의 의미

周易象辭新編	대大는 양陽을 말하고, 축畜은 소축小畜의 축畜과 같다. …… 이것은 양陽으로 저지沮止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축大畜이라고 하였다. 아니면 양陽으로서 저지하니 저지함이 크다. 이런 뜻으로 대축大畜이라고 이르는 것도 또 하나의 뜻일 것이다.(大畜卦)[103](大, 陽也. 畜, 如小畜之畜. …… 是其以陽而畜之者也. 故曰 大畜. 抑以陽而畜, 畜之之大. 以是而謂大畜, 亦一義也.)(大畜卦)[104]
	(소축괘에서) 소小는 음陰이고, 축畜은 저지沮止한다는 뜻이다. 괘의 형체가 하괘는 건乾이고, 상괘上卦는 손巽이니, 손巽의 초효初爻가 음陰인데, 음陰이 두 양陽의 아래에 숨어서 싸 모으는 것으로 덕德을 삼으니, 이는 진실로 물건을 저지하는 뜻이다.(小畜卦)[105](小, 陰也. 畜, 止之之義. 爲卦下乾上巽, 巽之初爻陰也. 陰伏於二陽之下, 二包聚爲德, 則是固有止物之意也.)(小畜卦)[106]
	대유괘大有卦의 괘체卦體는 하나의 음陰이 존위尊位에 거居하여 여러 양陽을 통솔하여 소유한다. 양陽이 음陰을 통솔하든 혹은 음陰이 양陽을 통솔하든 모두 유有라고 이를 수 있지만 오직 양陽을 소유한 자만이 대유大有가 되는 이유는 『역』의 뜻이 양陽을 크게 여기고, 음陰을 작게 여기기 때문이다.(大有卦)[107](卦之爲體, 一陰居尊, 統衆陽而有之. 陽之統陰, 陰之統陽, 皆可謂之有, 惟有陽者爲大有, 易之義, 陽大而陰小故也.)(大有卦)[108]

103) 김병애, 『河濱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上經 譯註』, 2016, 467쪽.
104) 『周易象辭新編』, 『河濱先生全集』 卷五, 372쪽.
105) 김병애, 『河濱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上經 譯註』, 2016, 229쪽.
106) 『周易象辭新編』, 『河濱先生全集』 卷五, 159쪽.
107) 김병애, 『河濱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上經 譯註』, 2016, 301~302쪽.
108) 『周易象辭新編』, 『河濱先生全集』 卷五, 226쪽.
109) 『周易象辭新編』, 『河濱先生全集』 卷六, 407쪽.

	소과괘小過卦에서 소小는 음陰을 가리킨다. 사음四陰이 위와 아래에서 지나치게 성盛하기 때문에 소과小過라고 한 것이다. 음陰이 지나치게 아래에서 성盛하므로 반드시 양陽으로써 이를 저지하는 것이고, 위에서도 역시 지나치게 성盛하므로 양陽으로써 이를 결단하려는 것이다. 하괘의 간艮과 상괘의 진震이 합쳐져서 소과小過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다. 그러나 괘의 명칭을 부여할 때 음陰을 위주로 한 것은 음陰이 괘의 상체上體와 하체下體에서 중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과大過와 소과小過가 비록 음양陰陽의 나뉨이 있지만, 대과의 경우에는 음陰이 양陽을 따르는 뜻을 취하였고, 소과의 경우에는 양陽이 음陰을 제어制御하는 뜻을 취하였다. 그 양陽을 높이는 뜻에서는 같다.(小過卦)(小謂陰也. 四陰過盛於上下故曰小過, 陰過盛於下則陽必止以畜之, 過盛於上則陽必動以決之, 下艮上震之為小過, 此其義也. 然, 名卦必以陰為主者, 陰得兩體之中故也. 大過小過, 雖有陰陽之分, 而大過取陰從陽, 小過取陽制陰, 其尊陽之旨, 一也.[109])(小過卦)
易經疾書	"소축小畜의 괘명卦名은 유柔가 그 자리를 얻은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육사六四가 여기에 해당된다."(『역경질서』, 소축괘(小畜卦)("小畜之名, 由於柔得位則六四是也.")(『易經疾書』, 小畜卦)
	삼사효三四爻의 두 개의 양陽이 이효二爻와 오효五爻의 사이에 있으므로 괘에 대유大有의 뜻이 있다.(『역경질서』, 대유괘大有卦)("三四兩陽, 間於二五之交而卦有大有之義.")(『易經疾書』, 大有卦)
	"(대장괘의) 대大는 양陽을 가리킨다."(『역경질서』, 대장괘大壯卦)("大者, 陽也.")(『易經疾書』, 大壯卦)

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	준괘屯卦의 "원형이정元亨利貞"을 「단전」에서 "대형정大亨貞"이라고 풀이하였으니, '대大'자는 '원元'과 '이利'의 뜻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비록 선유先儒들의 학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매우 순조롭습니다. 대축괘大畜卦의 「단전彖傳」에서 "대정大正"이라고 한 것에 이르러서는 괘명卦名의 '대大'자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屯之元亨利貞, 解以大亨貞, 大字包元利之意云此, 雖遠先儒之說而於義恐順. 至於大畜大正之大字, 蓋按卦名大字於此恐不可引以爲證, 未知如何.[110])
答愼耳老問目戊辰	대과大過·대장大壯·대축大畜의 '대大' 자는 모두 양陽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유大有괘의 경우에는 대大를 양陽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대大'가 이미 양陽을 가리킨다면 '소小'는 음陰을 가리켜야 하는데 소축小畜을 음축陰畜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소과괘小過卦 「단사彖辭」에 "작은 일은 가하지만 큰일은 불가하다."(可小事, 不可大事.)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경중輕重으로 말한 것입니다. 다시 상세히 연구하십시오.(大過大壯大畜之大, 皆指陽而言. 然, 大有不可作大者有. 大旣指陽則小當指陰. 小畜不可作陰畜. 小過彖傳云可小事不可大事. 此以輕重言. 更詳之."[111])

1748년(영조 24년)에 보낸 편지 「답신이로문목(무진)」에서 성호는 대과大過·대장大壯·대축大畜의 경우와는 달리 대유大有의 경우에는 '대大'자가 양陽을 가리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시 상세히

110) 「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 『河濱先生全集』 卷三, 142쪽.

111) [答愼耳老問目(戊辰)](https://www.krpia.co.kr/)

연구하십시오."(更詳之)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주역상사신편』의 대유괘大有卦 주注에서는 오직 양陽을 소유한 자만이 대유大有가 되는 것은 『역』의 뜻이 양陽을 크게 여기고, 음陰을 작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도 앞의 (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호의 의견은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5. 나오는 말

하빈 신후담의 경학에서 역학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며, 특히 『주역상사신편』은 그의 대표적 역학저술로서 최근에 와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신후담은 1724년에 성호의 제자가 된 이후로 평생을 성호의 제자로 지냈기 때문에, 성호가 신후담의 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학계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필자도 역시 신후담의 역학저술에서 성호의 학설을 수용한 흔적을 추적해 보았으나,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효변설의 경우는 신후담의 『주역상사신편』(1734)에 먼저 나타나고, 성호의 『역경질서』(1747)에서 이후에 나타난다. 이것은 신후담이 성호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성호가 신후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신후담은 성호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역학계몽보주』 등 역학 관련 저술이 있었고, 이미 어느 정도 학문의 기초가 다져진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성호의 학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성호의 가르침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성호와 신후담 사이의 역학토론은 이익이 1747년에 『역경질서』를 펴낸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신후담이 『주역상사신편』을 펴

낸 것은 1734년이고, 이 무렵에 성호는 『역경질서』의 구본舊本에 해당되는 『역설易說』을 써 놓고 있었으나, 공개하지는 않고 있었다. 성호가 『역경질서』의 개고본改稿本을 발표한 것은 1747년이었으며, 신후담은 이것을 계기로 성호와 역학토론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된다.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1748)」와 「답신이로문목(무진, 1748)」은 이익이 『역경질서』를 펴낸 1747년 이후로 이익과 신후담 사이에 진행되었던 역학토론에 관해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 두 종류의 자료는 이익과 신후담의 역학관의 차이差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토론이 진행되었던 1747년은 신후담이 『주역상사신편』을 완성했던 1734년 이후로 14년이 지난 뒤였다. 신후담은 1758년(57세)에 다시 『주역상사신편』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신후담은 1734년에 만들어진 구본舊本을 폐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후담이 죽은 지 일 년 뒤인 1762년(임오년)에 『주역상사신편』은 신후팽愼後彭·신후은愼後恩·신성愼俓이 신후담의 유문遺文을 토대로 『돈와선생전서遯窩先生全書』를 기획하면서 1차로 편집되었고, 1831년에 신신愼信에 의해서 2차로 편집이 이루어졌다.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에는 본문에 신신의 발언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현행본 『주역상사신편』이 1831년 이후의 사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1748년의 역학토론에서 이익이 지적하였던 문제들을 1758년(57세)에 수정된 『주역상사신편』에 반영되어 있는가? 필자는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1748)」·「답신이로문목(무진:1748)」·『주역상사신편』·『역경질서』의 네 종류의 자료를 대조해 보았으나, 신후담이 성호의 견해를 수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신후담이 성호의 학설을 수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성호의 견해에 결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후담은 자신의 학설에 확신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학설이 성호보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더 탁월했다고 생

각했기 때문에 성호의 학설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논문투고일 2025년 2월 22일, 심사확정일 2025년 4월 6일,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18일)

참고문헌

원전 및 원전번역류

愼後聃, 『河濱先生全集』, 아세아문화사, 2007.

_____, 『李星湖易經疾書纂要』, 『河濱先生全集』 卷三, 아세아문화사, 2007.

_____, 「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 『河濱先生全集』 卷三, 아세아문화사, 2007.

_____, 『河濱先生年譜』, 『河濱先生全集』 卷九, 아세아문화사, 2007.

_____, 『王弼易略例』, 『河濱先生全集』 卷三, 아세아문화사, 2007.

_____, 「上崔芝山書」, 『河濱雜著』, 『河濱先生全集』 卷七, 아세아문화사, 2007.

_____, 『易經通解圖說補識疑』, 『河濱先生全集』 第3冊, 아세아문화사, 2007.

李瀷, 『星湖全集』, 韓國文集叢刊, 제198~200집, 한국고전번역원, 2007.

____, 『易經疾書』, 『韓國易學大系』 第15卷, 韓美文化社, 1998.

丁若鏞, 『易學緖言』, 『定本 與猶堂全書』 제17책,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李光地 撰, 楊軍 點校, 『周易折中』 上中下, 中華書局, 2022.

[宋]黎靖德 編, 王星賢 點校,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저서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학문세계』, 다홀미디어, 2021.

방인, 『다산 정약용의 역학서언 주역의 해석사를 다시 쓰다』, 예문서원, 2020.

성백효 역주, 『대학중용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성백효 역주, 『주역전의(상)』, 전통문화연구회, 1998.

신후담, 김선희 역, 『하빈 신후담의 돈와서학변』, 실시학사, 사람의무늬, 2014.

왕필, 임채우 역, 『주역왕필주』, 길, 1998.

이광지 著, 신창호·김학목·심의용·윤원현 공동역주, 『주역절중』, 학고방, 2018.

논문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역학연구와 이해」, 『한국사상사학』, 제16집, 2001.

_____, 「하빈 신후담의 경학사상 서설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3호, 2014.

강세구, 「성호문인 하빈 신후담과 성호학파」, 『하빈학의 지식문화적 기호와 규모 –성호학의 문파적 전개』, 성호학회·하빈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자료집, 2024.

_____, 「성호 문인 하빈 신후담과 성호학파」, 『성호학보』, 26호, 2024.

김병애, 『河濱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上經 譯註』,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_____,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주역상사신편』의 효변을 중심으로, 『유교사상연구』, 제73호, 2018.

_____, 「「절중의례」에 보이는 신후담 역학요소의 개념 분석과 성호문인의 『주역절중』 논변」, 『동양철학연구』, 제99집, 2019.

김인철,「성호 이익의 괘변론 -그 내원과 후학의 변용을 겸하여」,『태동고전연구』, 제48집, 2022.

방인,「양시교의 고문역에 대한 신후담의 이해 -『독임당양씨시교고금문역기의』와『주역고금문전서』를 중심으로」,『한국학』, 제47권, 17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서근식,「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Ⅰ) -성호 이익의 역경질서에 나타난 周易 解釋 方法」,『한국철학논집』, 제44집, 2015.

_____,「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Ⅱ) -하빈 신후담의『주역상사신편』에 나타난 주역 해석방법」,『한국철학논집』, 제48집, 2016.

_____,「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Ⅲ) -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한국철학논집』, 제53집, 2017.

_____,「邵南 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동양철학연구』, 제108호, 2021.

신용일,「신후담의『주역상사신편』에 관한 교육적 고찰」,『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논문집』, 창간호, 1995.

신재식,「조선후기 지식인의 이광지 수용과 비판」,『한국실학연구』, 제34호, 2017.

엄연석,『정이 역전의 역학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이동욱,「星湖의 필사본 疾書 11종 異本 연구」,『태동고전연구』, 제30집, 2013.

이창일,「신후담『주역』해석의 특징 -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하며」,『한국철학논집』,

52집, 2017.
이창일, 「신후담 역(易) 해석의 통합적 방법론 – 문언전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53집, 2020.
_____, 「성호 이익 역학 해석의 비판적 계승 – 신후담의 상수역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民族文化』, 제65집, 한국고전번역원, 2023.
_____, 「정약용 주역해석의 경학사적 이해」, 『장서각』 제5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임재규, 「中國易學史에 나타난 爻變論 연구 – 陳應潤, 黃道周, 包儀의 爻變論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 제82호, 2013.
조희영, 「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白雲 沈大允 易學의 특색 – 새로운 占法과 爻變說 및 先後天說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82호, 2019.
최영진 · 이선경,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일고찰 – 건괘(乾卦)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2호(통권 135호), 2014.
황병기, 「성호학파의 주역 상수학설 연구 – 이익, 신후담, 정약용의 역상설(易象說)을 중심으로」, 『다산학』 2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5.
_____, 「조선 역학의 시대정신과 문화적 상대성 – 정약용의 역상학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57, 2022.

인터넷 자료

https://www.krpia.co.kr/(『星湖先生全集』)
https://www.itkc.or.kr/(한국고전번역원 웹사이트 참조)
https://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국문요약

신후담 역학의 연구에서 성호 이익과 신후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익은 신후담 역학 사상의 형성에 지속적으로 깊은 영향을 준 인물이며, 신후담의 학문적 성장을 평생 지켜본 관찰자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지식 전수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었으며, 신후담은 이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토론을 지속했다. 『하빈선생연보』에 따르면, 1750년 두 사람의 토론 중 이익이 "오물치방"을 경고한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익은 신후담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지 않았고, 자득과 교학상장을 중시하였다.

1747년 이익이 『역경질서』를 간행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의 역학 토론은 활발해졌다. 본 논문은 『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 『역경질서易經疾書』, 「상성호논역경질서별지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 「답신이로문목答愼耳老問目·무진戊辰」 등 네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후자의 두 자료는 이익과 신후담 사이의 구체적 토론 내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이다. 『주역상사신편』은 1734년에 초고가 완성되었고, 1758년에 수정되었으며, 이후 1762년과 1831년에 다시 편집되었다.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1831년 신신愼信이 편집한 것이다. 신후담이 이익의 비판을 수용했다면 1758년 수정본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나, 그런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신후담이 성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의 학설에 대한 확신과 성호 학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

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 성호星湖 이익李瀷, 『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 『역경질서易經疾書』, 『하빈선생연보』.

Abstract

The debate on *Zhouyi* studies between Habin(河濱) Sin Hudam(愼後聃) and Seongho(星湖) Yi Ik(李瀷)

Bang In

Professor Emeritus, Kyungpook National Uinv.

In 1724, Habin(河濱) Sin Hudam(愼後聃) joined Seongho(星湖) Yi Ik(李瀷)'s school at the age of twenty-three and remained his disciple until death. Though encouraged to pursue his goals independently, tensions arose between them. However, their relationship endured due to Seongho's tolerant attitude.

Their debate on the *Zhouyi* became active after Seongho published the *Yeokgyeong Jilseo*(『易經疾書』: *Quick Notes on the Yijing*) in 1747. This paper examines four materials: *Juyeok Sangsa Sinpyeon*(『周易象辭新編』: *New Edition of the Xiang Statements of the Zhouyi*), *Yeokgyeong Jilseo, Sangseongho Nonyeokgyeongjilseo Byeolji*(上星湖論易經疾書別紙: *Additional Sheets attached to the discussion of the Yeokgyeong Jilseo*), and *Dapsiniromunmokmujin*(『答愼耳老問目戊辰』: *Answer to the questions asked by Sin Hudam in the year 1748*). The latter two reveal direct exchanges between Yi Ik and Sin

Hudam. Notably, *Dapsiniromunmokmujin* shows Seongho's critique of Sin's *Zhouyi* interpretation. Sin's *Juyeok Sangsa Sinpyeon* was completed in 1736 and revised in 1758, with later edits in 1762 and 1831. The current version reflects the 1831 edition by Sinsin(愼信), not the original. If Sin had accepted Seongho's critique, changes should appear in the 1758 revision — but they do not. This suggests Sin remained convinced of his views and may have seen flaws in Seongho's theory, possibly believing his own interpretation to be superior in some respects.

Key Words | Sin Hudam(愼後聃), Seongho(星湖) Yi Ik(李瀷), *Juyeok Sangsa Sinpyeon*(『周易象辭新編』), *Yeokgyeong Jilseo*(『易經疾書』).